도안 신도시 18BL 우미 Lynn
단지내 상가, 분양,임대
※문의 042)487-2400

大田투데이

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223-2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249호 2016년 1월 1일 금요일

대전 중구 보문산 장대루서 바라본 일출 광경

500만 충청인 지역발전 · 지역 경제살리기 올인

병신년 대한민국 중심지로 '우뚝'

2016년 병신년에는 충청권이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과학의 요충지지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 향토기업과 출향인사 등 500만 충청인이 지역발전과 지역의 경제살리기에 올인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의 실천과 4.13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이다. 충청권의 표심이 여당과 더민주당 그리고 안철수의 제3신당이 출현, 충청권이 여야 정국의 표심을 아우르는 케스팅보드를 거머쥐는 황금표심이 나올지도 그래서 관심이 높다.

또한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연계된 대전지하철 2호선의 착실한 추진과 대전-세종간의 고속도로건설 추진, 미래부의 원안이전 등 미 이전한 정부부처의 이전완료, 내포신도신의 정착과 중국 등 무역전초기지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진항 확충 등 황해권개발과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한해가 되길 500만 충청인은 기대한다.

정부도 구랍 16일 충청권 집중육성사업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 · 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선언했다.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 의약부분을 집중 발전시키고 충남은 태양광 에너지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산업을 집중 육성-발전시킨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에너지와 ICT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충북은 바이오산업으로 의약과 화장품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해외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과학발전의 대한민국 허브로 조속한 투자가 선행돼야하고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야한다.

대전시는 2016년 새 성장동력 창출 등 성장 · 개발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사상최대로 2조 5,30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충청권광역철도, 대전 디자인센터 건립, 광역 BRT 환승센터 등 대전 100년을 만드는 민선6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은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희정 지사가 2016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온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와 당진 · 평택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 홍성기상대 건립, 왜목 해양레저타운 조성, 서해선(홍성~서산) 복선전철 등 5건을 도정 현안사업으로 선정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안희정 지사는 구랍 26일 도정연설에서 "행복한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도민이 모두 행복할 권리로 생명과 인권이 우선하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며 행복한 환경으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또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3대 혁신과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면서 "자치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3농혁신,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해 현장실천력을 강화하고 핵심가치를 확산시키며 행정혁신을 위해 지식기반행정 강화, 인적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와 복지인프라확충 3개년 계획 등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구랍 2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시정기조를 "실질적 행정수도 2단계 본격 추진의 해!로 설정, 4대 시정방침에 맞추어 10대 역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부 · 해수부 조기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추진력도 내비쳤다.

이처럼 충청권 4개시도정의 청사진에서 밝힌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조가 요망된다.

한대수기자

신년사

메르스 정국, 국정화 논란, 위안부문제 등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희망차고 지혜로운 붉은 원숭이띠의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500만 충청인과 대전투데이 애독자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모두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500만 충청인! 그리고 애독자여러분!

재주가 많은 원숭이띠의 병신년(丙申年)에는 오는 4.13총선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확보로 충청권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500만 충청인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전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충청권의 표심이 여야 정치권의 캐스팅보드로 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정치발전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충남-충북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500만 충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 성 구
본사사장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난 해소는 물론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연계된 대전지하철 2호선 건설, 과학벨트의 착실한 원안추진, 충남의 내포신도시정착과 안면도관광개발사업 등 황해권 개발의 지속추진, 충북의 첨복단지조성과 바이오산업의 특화, 세종특별자치시로의 미래부의 원안이전 과 서울~세종간의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착공의 가시화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며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의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대망찬 2016년 새해! 지혜롭고 영리한 원숭이띠를 맞이하여 500만 충청인과 애독자여러분 모두 더욱더 알차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젊은 생각 바른 신문'을 지향하는 대전투데이 임직원들은 더욱더 빠른 뉴스, 알찬정보를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처럼, 창간한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대전투데이는 그동안 애독자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청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혹시 '애독자분들에게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좀 더 열심히 뛰고 좀 더 발전지향적으로 보도 해야겠다' 그래서 살맛나는 충청, 살고 싶은 충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데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며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500만 충청인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유난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병신년 희망찬 새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희망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고 그 희망의 씨앗에 충분한 수분과 알맞은 영양분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전투데이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응원해주시는 애독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병신년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는 풍요로운 한 해, 500만 충청인의 가정에 웃음이 만발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500만 충청인! 그리고 애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호 특집 지/면/안/내

정치인 신년사 2면
지자체 · 교육감 신년사 3면
5개구청의 올해 주요이슈 5면
2016년 병신년 달라지는 제도 8면
한화이구, 대전시티즌 축구전망 13면

신 년 사

"건강한 보수의 리더십 세울 터"

정용기 국회의원
새누리대전시당 위원장

지난해 우리 대전에는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대전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계속될 것입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회덕IC 신설도 예타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예타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거환경개선, 철도문화메카육성,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등 새누리당이 시민들께 드린 모든 약속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정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이 힘을 모아 시민과 함께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호남선 KTX 서대전역 미경유 문제, 국민안전처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예산 미반영 문제 등,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비롯해 남겨진 과제가 더욱 많습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말보다는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2016년, 대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도적 충청시대의 서막 올려야"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충청민 여러분, 대전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고 강건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포장지만 바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배수지진의 각오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민 여러분.

충청은 다시금 도약의 한 해와 마주했습니다.

이제 영충호 시대를 넘은 주도적 충청시대의 서막을 올려야합니다. 충청은 이제 '충절'을 넘어 '역동'과 '변화'의 가치를 함께해야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 ·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과 통일의 길로 나서야합니다.

충청이 그 선두에 설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면 가능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병신년 한 해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성취의 한 해 되도록 노력"

박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 갑

새해를 환히 비추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건강과 평강이 함께 하는 힘찬 새 출발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춥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헤쳐 나가야 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웠습니다.

새해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처럼 올 한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과 성취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쓰다듬고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한결같고 진솔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각박해 질수록 주위를 둘러보고 온정을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추운 겨울바람이 가시지 않았지만, 머잖아 생기 있는 봄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취의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가족의 건강과 소망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충청권 지역발전 위해 앞장서"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투데이 독자 여러분

대전 유성 ·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성과를 되짚어보면 작년 11월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대전의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여 대전이 세계적인 특허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민생을 위해 힘쓰는 일임을 기억하며 올 한해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전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대전 시민들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희망찬 2016년 저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충청권이 한국정치 발전에 선도적이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더 큰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 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 이끌 터"

이장우 국회의원
대전 동구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신년 새해는 우리 민족이 지난 70년간 온갖 역경을 헤치고 '기적의 역사'를 써왔듯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한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혼신의 힘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자부할만한 나라를 만들어 내었고 이제 재도약의 중요한 실험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키우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전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우리의 아들딸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구민 중심 합리적 자치행정 구현"

한현택 동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 동구가족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각자가 꿈꾸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 여러분의 욕구에 부흥하는 문화.관광.교육도시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없는 구민 중심의 합리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는 국가적 대사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와 동구 공직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품격 있는 동구를 만드는데 구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복서구 100년의 미래 펼치겠다"

장종태 서구청장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을 뒤로하고 밝은 양(陽)의 기운이 넘치는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은 그동안 쌓아온 든든한 토대 위에 민선6기 구정의 성과와 주민께 약속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선보이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6기 출범이후 겸청즉명(兼聽卽明)의 자세로 소통하며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계획을 실천했다면, 올해는 한결같은 곧은 마음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루겠다는 직심필수(直心必遂)의 마음가짐으로 행복서구 100년의 미래를 펼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합니다.

희망찬 2016 새해! 50만 구민 여러분 모두 사람과 사람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큰 보람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동 · 여성 친화도시 조성 올인"

허태정 유성구청장

존경하는 34만 유성구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꿈과 계획 모두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올해는 도시의 외연확장을 통한 양적성장과 병행해 개성과 품격, 격조 높은 도시문화를 창출해 사람과 자본,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도록 유성의 매력 자본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매력유성의 핵심 본거지로 온천로 주변과 충남대.KAIST 대학가를 잇는 가로축, 갑천변과 유림공원 일원을 잇는 세로축을 하나로 묶는 (가칭) '매력유성 가치창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변화의 출발점을 아이와 여성에 두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는 '아동.여성친화 도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센터.도안도서관 건립사업, 보건소 신축이전, 등 유성의 미래를 위해 꼼꼼히 준비했던 현안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인구 40만 중핵도시의 개막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와 생활 체육 풍요로운 도시"

박수범 대덕구청장

희망찬 2016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역경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참여로 구정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올 해는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반석 위에 비전과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씩 가시적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정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째, 구민께 좀 더 다가가는 소통 제1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 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셋 째, 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넷 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6만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의회"

문제광
중구의회장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소한 민원이라도 적극 처리하는 등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중심, 구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올해도 「26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으로 「26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

박양주
서구의회장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설레 임과 희망찬 계획으로 맞이한 '병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하시는 일마다 더욱 크게 발전하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일을 뒤로하고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나갑시다.

금년 한해도 우리 서구의회의원 모두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그동안의 의정경험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항상 의회의 문을 활짝 개방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뜻을 한 데 모아 최적의 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전개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 만들 것"

이세형
대덕구의회장

존경하는 20만 대덕구민 여러분!

대망의 201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조적이며 영리함의 상징인 원숭이해에 온 나라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구의회는 구민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한분 한분을 소중히 살피고,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현장의정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역할도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7대 대덕구의회는 한순간도 헛됨이 없이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구민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하며 빨리가기보다는 구민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새해에도 구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 하신데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젊음 넘쳐나는 '청년 대전' 만들터

권선택 대전시장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지혜,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시는 이러한 경청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청년 취·창업과 도시재생, 안전한 대전, 그리고 대중교통 혁신'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 '청년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대전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2016년 우리 대전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236년 병신년에 국난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팔만대장경 불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2016년,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저 자신부터 혁신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거죠?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웃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2015 교육과정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공과 행복,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학생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우리 모두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대전의 인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세계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공감을 주는 자랑스러운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시민화합·일자리 위해 최선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여러분!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15년은 정말 다사다난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메르스에 대전이 흔들렸고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으로 만성피로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대전의 마무리만큼은 보람 있는 한해였습니다. 8월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유치되었고,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국비도 최대한 확보되었습니다.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나 국방산업메카 조성이 여러 고비를 넘고 정상궤도에 진입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2016년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화합'과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아침 시민여러분께서 품은 소망과 포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어, 늘 크게 웃는 병신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상 충남도가 앞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린 시절 새해를 맞을 때면 가족들이 모여 싸리비로 집 앞 마당을 쓸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 복을 불러오기 위한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6년 새해 새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던 나쁜 기억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새 희망으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2016년, 여러 난관 속에서도 충청남도는 도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믿고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올해에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3대 혁신과제와 민선 6기 새롭게 설정한 3대 행복과제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을 포함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2016년 충남도정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학력 신장·진로진학 교육 강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주적으로 성숙한 사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교육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으로 국가와 사회의 통합·발전을 이루어내고, 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의 과제, 충남교육의 사명입니다.

2016년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라는 양 날개로 비상합니다. 참학력은 교과교육 위주의 전통적인 학력을 확장시킨 개념으로 인성, 사회성, 신체적 능력을 포함한 미래형 학력입니다. 참학력 신장은 수업혁신을 통해 가능합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이며, 교육의 나침반입니다.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진학센터를 거점으로 급변하는 진학제도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만여 학생들과 3만 교직원 그리고 210만 도민의 힘찬 출발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원숭이처럼 여러분과 언제나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충남, 대한민국 심장부로 도약

김기영 충남도의회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다재다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대내외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한다는 사례들을 실감나게 보여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6년에도 道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공감·창조·실천 의정이라는 3대 비전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잃지 않고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경제·관광 등 新아시아 실크로드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道의회는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210만 도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세종시 건설

이춘희 세종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병신년 새해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행복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세종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세종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에는 정든 집과 산과 옥토를 내어준 원주민이 살고 중앙부처 이전과 신도시 건설에 부응하여 옮겨온 새로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터전을 제공했고 새주민은 풍요와 활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사는 도시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산줄기가 이어져 차령산맥을 이루고, 구불구불 내와 개울이 모여 금강으로 굽이치듯, 대립과 배척보다는 이해와 포용,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건강하고 따뜻한 세종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돌봄·나눔의 교육생태계 조성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향한 2016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세종시교육청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에서 두루 배우며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무게추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곳에 놓고자 합니다.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간호사가 배치되고, 혁신학교의 확대와 함께 교원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고교의 교육과정 역시 평준화를 토대로 폭 넓게 다양화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과 나눔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교육에 대한 상상들은 곧, 미래 세종시의 교육력이 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 역사적인 길에 여러분이 함께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과 고마움을 담아 세종시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 만드는데 앞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21만 세종시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 화평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예로부터 충절의 기상이 살아있는 충청의 중심 터전 위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또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소모적인 이념 갈등과 더불어 청년 취업문제, 계층간의 소득배분의 불균형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우리 세종지역적으로 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올해 세종시의회는 21만 시민과 더불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종시가 있기까지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세종시를 굳건히 지켜냈듯이 세종시의회 전 의원들은 초심불망(初心不忘)의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유성구 도안지역에 개장

유성구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3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해 12월 30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구의원, 주민,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 원신흥동(봉명로 27-19)에 조성한 '도안지구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도안직매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장하는 도안직매장은 지난 8월 유성구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전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267.77㎡(약 80평) 규모로 조성된 민관거버넌스형 직매장이다.

도안직매장에서는 유성로컬푸드인 바른유성찬을 포함 인근지역 등 300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500여종과 친환경 가공품 1500여종 등 2000여종의 다양한 안심 먹거리를 판매한다.

한편, 구는 이번 도안직매장 개장으로 지난 2014년 4월 개장한 노은본점(지족로364번길 40)과 올해 12월 23일 개장한 노은점(은구비남로 3)까지 3개의 직매장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관내 권역별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꾸준히 조성됨에 따라 건강먹거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선순환 경제와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내년 보통교부세 사상 최고 확보

대전시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로 역대 최고인 5천752억 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4천898억 원 보다 854억 원(17.4%) 증가된 규모로, 17개광역시도중 최고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초 '16년도 예산에 4천90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반영했으나, 행정자치부의 반영액이 854억 원이나 늘어났다.

추가 확보된 854억 원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으로 민선6기 약속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교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감사와 관련된 교부세감액 최소화,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등 자체 노력도 상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에 힘쓴 결과라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고종승 예산담당관은 "2016년에도 교부세 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현안사업 해결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서구 2016 신입 유도선수 입단식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30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2016년 새로 영입한 박다은(+78㎏급), 박혜진(-63㎏급) 두 선수의 입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선구 서구체육회 운영위원장, 이종현 체육진흥회장, 오경환 시 유도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종태 서구청장은 영입선수들에게 임용장과 도복을 수여하고, 2016년 선전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입단하는 박다은 선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등 다수대회에서 입상경력이 빛나는 우수한 선수이며, 박혜진 선수 또한 '2015 추계전국대학 유도연맹전' 1위를 차지한 유망주로 서구청 유도부의 전력향상이 기대된다.

김태선기자

대성학원 임시이사 8명 선정

사학분쟁위, 신원조사 · 결격사유 조회 등 거쳐 이달 중 선임… 2월초 이사회 소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 전원이 물러난 대성학원에 선임할 임시이사진 8명을 선정하여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8명은 △강병열 한밭범부법인 변호사 △강신곤 전)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용대 전) 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유낙준 성공회 대전교구 교구장 △이동복 전) 대성여중 교장 △전태훈 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정선호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 △한경아 대성고 학교운영위원이다.

시교육청은 통보된 임시이사들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임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며, 선임 절차를 마무리 한 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쯤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선임된 임시이사진은 지난 11월 20일 이사 전원 사임으로 중단됐던 이사회의 일반 업무부터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임용취소 처분까지 여러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진이 채용비리로 얼룩진 대성학원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고,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인사담당자 52.7% "새해 채용 올해보다 적을 것"

"낮은 기대감으로 인력선발 소극적으로 예상"

내년 채용시장 경기에 대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인사담당자가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상당수의 인사담당자들은 내년도 채용시장 경기가 올해 못지않게 팍팍할 것이라 예상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72명에게 '2016년 채용시장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132%로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47.6%는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 답했고, 39.2%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답했다.

'2016년에는 올해보다 정규직 채용을 더 많이 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더 많이 채용할 것 같다'는 답변은 10.8%에 그쳤고, '올해보다 적게 채용할 것 같다'(52.7%)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 같다'(36.6%)는 답변이 높았다.

'올해보다 더 많이 채용할 것 같은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퇴사하는 직원이 늘어 채용이 늘 것 같다'(45.0%)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직원을 더 채용할 것 같다'(37.5%)거나 '경력직 퇴사 후 공백을 충원할 것 같다'(30.0%)는 답변이 높았다.

'올해보다 더 적게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퇴사하는 직원의 공백을 충원하지 않을 것 같다'(46.9%)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인력을 축소할 것 같다'(45.4%)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34.2%)는 답변이 높았다.

채용경력별로 '2016년에는 신입직 채용이 올해보다 증가할까?'라는 질문에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 같다'(43.8%)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2016년에는 경력직 채용이 올해보다 증가할까?'라는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 같다'(50.5%)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한편, 내년에 조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을 계획하는 기업이 4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답변은 중소기업보다 중견/대기업에서 더 높았다.

'2016년 조직 구조조정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25.8%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기업은 43.0%였고, 31.2%는 '미정/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직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중소기업 중에는 22.1%였으나 중견/대기업 중에는 41.1%로 많았다.

'2016년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인력감원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27.2%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기업은 36.6%, '미정'은 36.3%로 조사됐다.

인력감원을 계획하는 기업도 중견/대기업이 38.4%로 중소기업 24.4%보다 많았다.

잡코리아 김훈 상무는 "내년 경기회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새해 기업의 인력선발을 소극적으로 예상하는 인사담당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태선 기자

회덕농협, 대전 대덕구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쌀 나눔 회덕농협

(조합장 김영국)에서는 지난 30일(수) 연말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농촌사랑기금으로 마련한 쌀 10kg 200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 기탁했다. 구는 기탁 받은 백미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마2동 경로당 신축

박병석, 교부세 3억 확보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4선 ·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도마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의원 "도마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인근 경로당이 있으나 건물노후와 규모상 수용불가 상황"이며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별도로 월세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경로당 건립이 절실히 요구 되는 지역 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의 노후가 편안한 생활 환경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유등노인복지관신축, 노인체육시설현대화, 경로당 건립 등 노인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총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공로로

대전 서구 노인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으며 2006년에는 효도회 중앙회에서 효자상을 수상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위의장 시절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을 국비를 반영하여 전국 7만여개의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5개월간의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정복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천안 제3탄약창 93만㎡ 해제

박완주 의원 "직산 판정리 등 추가해제 요구할 것"

군(軍) 탄약창 설치로 지난 50여 년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웠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일대 93만㎡(28만3천평)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 · 사진) 의원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등 28만9720㎡를 관보고시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박완주의원과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2014년 12월 성환읍 대흥리, 성월리, 판정리, 용정리, 도하리, 수향리 등 198필지 49만5054㎡(15만평)를 시작으로 지난 6월 성월리, 군동리, 학정리, 판정리, 흑암리, 산정리 등 14만9000㎡(4.5만평)에 이어 세 번째로 해제지역이 됐다.

특히 3탄약창 남측의 직산읍 판정지역도 군사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추가해제를 추진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3탄약창은 1963년 천안시 서북구 일원 753만㎡(228만평)을 정부가 징발해 탄약과 각종 포탄을 보관하고 있으며 1976년 경계로부터 1㎞인 1229만㎡(372만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박완주 의원은 2014년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군사보호구역완화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탄약창 주변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군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도 이어갔다. 지난 9월부터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3탄약창장을 만나 탄약창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말,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의 20%인 93만㎡를 3차에 걸쳐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완주 의원은"안보편익은 전체 국민이 누리는 반면 그 불편은 탄약창 주변의 일부 주민들만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해제가 확정된 28만3천평 이외에 직산읍 판정지역 주민들의 추가해제 요구도 군사시설 재배치 등의 방안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 '낙찰 배제'

987개 업체 영업정지 처분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개 업체 중 '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봉관 기자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대회

중구보건소 5개구 중 1위 선정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 보건소가 대전시가 주최하고 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주관한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대회'에서 5개구 중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중구보건소가 대전시 5개구 중 1위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리게 된다.

이번 평가는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금연 · 운동 · 영양 등 10개 분야에 대한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발표를 토대로 대전 · 충남 · 세종 통합건강증진지원단 합동평가로 이뤄졌다.

중구보건소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찾아가는 주민건강의 날,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방해孝 검사해孝 함께해孝' 치매사업을 평가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해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이다.

박용갑 청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신/년/사

생생한 의견 수렴 의정반영 강력 추진

류택호 동구의회의장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더해 경제 ·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위기극복을 통하여 기회와 희망을 찾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변화와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구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의와 영리함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해인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동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택과 집중… 살기좋은 중구 만들터

박용갑 중구청장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 출범이후 1년여 동안 다져온 기반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중구가 개청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혹(不惑)이라는 나이는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늘 긍정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하면된다'라는 도전 정신으로 750여 공직자와 함께 쉼 없이 노력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민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구청 2015년 주요 성과와 2016년 주요 이슈

대전시 5개구청의 지난해 주요성과 와 2016년 병신년 각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과 이슈에 대해 에 간략히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동구

동구의 2015년은 어려운 재정위기 속에서도 문화 · 복지 · 환경 · 경제가 융성한 새로운 동구 100년의 기반 조성 했다.

▶재정건전화 5년 계획 추진

2015년 동구는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추진으로 정원감축(10명), 미충원(공무원 46명, 무기직 6명), 복지인력 미확충(12명)으로 인력감축, (구)대동종합사회복지관 등 공유재산 매각(16건 11억원) 재산매각, 행정경비(43억원), 문화.체육행사 축소(1.4억원), 국제화센터 운영 중단 등 예산절감 했다.

재도약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대신2, 대동2), 주택재개발사업(대성동2, 신흥3), 주택재건축사업(용운주공), 도시개발사업(판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동부선 연결도로(보행로개통), 삼가로 및 신안동길(1단계 보상 완료),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본선구간 완료) 도시인프라를 확충했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동구 구현을 위해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57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아케이드 1개소, LED 조명등 462개, CCTV 85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22개소) 등 경제활성화,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복지브랜드 정착, 복지통장제 운영, 모아모아 기부데이 운영, 위기가구 발굴.지원 복지네트워크 강화 등 복지동구 구현에 힘썼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올해 변화되는 주요구정으로 지역개발 분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 2단계(천동3, 소제, 구성2), 3단계(홍도, 대동3), 대전역복합2구역(동광장) 개발 본격 추진 : 주거, 판매, 업무, 호텔 등 53층 규모,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본선외 구간 준공 : 입체교차시설 17, 측면도로, 복합활용공간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분야 – 식장산문화공원 조성 : 한옥식 전망대, 스카이웨이, 편의시설 등,구민 문화격차 해소 :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중앙.시 문화공연 적극 유치,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야외체육시설 확대설치,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11월) :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지상 3층),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 구민중심 자율적인 복지제도로 육성 한다.

지역경제 분야 –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 : 77필지(산업용지 45, 단독주택 14, 지원시설 등 18),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 추진 : 대동 115–2번지 일원(지상6층),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중앙시장) : 문화공간,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지원 등으로 제16회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 3월, 2016년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 : 10월, 2016 국화전시회 : 10월 말에 주요행사가 개최된다.

중구

중구는 2015년 "효 문화 확산" 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중구 핵심 2대 과제 실현을 위한 열정적 도전을 구민과 함께했다.

▶건전한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효"가치 증진

2015년 중구는 건전한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효"가치 증진했다. 제7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개최 됐다.

효 문화 확산 실천과제 : 4개 분야, 34개 과제 – (바른인성교육 / 1 분야) 뿌리아카데미 내 "효강좌" 등 6개 과제, (범국민적 실천운동 / 2 분야) 편지쓰기 운동 등 12개 과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마케팅 / 3분야) 중구 갤러리 효작품 게시 등 10개 과제, (기반시설 확충 및 성과환류 / 4분야) 어르신 여가공간 조성 등 6개 과제 지속 추진했다.

원도심 활력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정감있는 원도심 공간 창출하여 중교로 타일벽화 조성,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함께 어울리고 즐거움이 있는 문화행사로 중교로 차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6회), 우리들 공원 야외공연(12회) 등으로 찾고 머물고 즐기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 상위법령 근거 미비, 위임범위 일탈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주민 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효 메카, 효! 월드 인프라 대폭강화

올해 변화되는 주요구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효 메카, 효! 월드 인프라 대폭 강화 –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효문화진흥원 등 효! 월드 기반시설 확충, (뿌리공원) 성씨 조형물 90기 추가 설치, 공원경관 개선, (족보박물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외관조명 개선, (효문화진흥원) 16년 하반기 개원 예정,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춘 프로그램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원도심 권역 활성화 사업 가시화 – 양지근린공원(선화동) 조성, 선화로 확장 공사 / 12월 준공 예정,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2단계 사업 / 6월 준공 예정, 선화동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 10월 발주 예정이다.

소통과 공감의 상향형(Bottom–Up) 조직문화 창출 – (가칭, 통통데이트) 직원과 구청장간의 직접 대화공간 창출, (시책발굴 개선) 신규자 중심(멘토링제 접목) 시책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제2회 대전칼국수축제 : 4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기념식 9월, 제8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 9월 ~ 10월 주요행사가 개최된다.

서구

서구는 2015년 '서구, 100년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통합' 의 나눔과 봉사의 문화 조성,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함께' 의 가치 실현 및 행복구정의 디딤돌 구축했다.

▶구민과 소통, 공감, 참여 행정 추진

2015년 서구는 구민과 소통, 공감, 참여 행정 추진으로 (소통) 주민의견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2015. 6월) / 4개 권역 61개 사업, 균형발전 위원회 구성(2월), 연구용역 (2월~6월), 기본 계획수립(6월말),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4월~5월) / 17회, 1,900여명 참석, (공감)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민통합, 주민주도의 범구민운동 전개, 창의적인 행복트렌드 "행복드림릴레이"운동 (344개팀),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운영(3월), 주민참여형 감사위원회 출범(8월), 주민자치위원회 준 자치권 강화 실천포럼(2회), 대학생 행복 나눔 봉사단 운영(2,656명)했다.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시설 및 제도 구축 – (안전) 재난 사전대비태세 구축(상황실 24시간, 화재복구 ONE–STOP 협약체결),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긴급복지지원 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공제료 지원(13,995명 / 57,472천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529개소 / 689,782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 · 운영(8월)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자치 강화 – (경제) 일자리 창출(5,388개), 취업훈련(10과정), 구인 · 구직연결(2,193명), 사회적.마을기업 육성(29개소), 착한가격업소 육성(106개소), 인터넷 전통시장 구축(12월) 등, 환경) 숲속 황톳길 조성, 등산로 정비, 홈플러스 둔산점 주차장사용 협약(8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사업(5개소), 온실가스 줄이기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됐다.

▶도마 · 변동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올해 변화되는 주요구정으로 자치.문화 분야 – 지역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개최 (16.4.29~16.5.1), 주민자치위원회 준 자치권강화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행복 프로젝트 고도화 : 골목길투어, 마중물대화방, 행복드림 릴레이 등, 선진 감사정보 교류(업무협약),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 우수업소 인증제 등, 지역 문화 시설 인프라 구축 확대 :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15.12~17.6), 작은도서관 괴정동(15.12), 내동(16.5), 도마동(16.9) 확충된다.

경제 · 복지 분야 – 생활임금제 시행(16.1), 희망일자리 드림단 구성, 취업훈련 확대, 공동물류 창고 건립 추진(16.3~), 도마시장 고객센터 준공(16.12),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16.1)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16.7), 장애인 맞춤형 「행복한 우리복지관」 다목적 체육관 운영(16.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16.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6.3, 관저5지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16.9), 독거노인 등 안전 돌봄장비 구축 확대(344→637대)운영 된다.

환경 · 건설 분야 – 도마.변동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1.8.11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복수1, 탄방1.2, 용문1,2,3), 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 노후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구)서구청사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면 200면 / 9,980백만원, 민간부설주차장(기관, 학교, 교회, 나대지 등) 주차면 205면 야간 무료개방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운영 : 1월 ,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개최 : 4월, 서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7월 주요행사가 개최된다.

유성구

유성구는 2015년 혁신, 협업, 협치를 통한 구민 중심의 구정 운영과 건강도시 정책 추진 등 생활.문화인프라 확충 운영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대

2015년 유성구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대 – 건강100세 지원 센터 및 건강100세 버스 운영, CCTV 설치 확대(142대 증), 다가구주택지역 무인택배함 설치(4개소) 운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일자리 창출(3,700여개), 중부권 최초 생활임금제 도입(6,290원/시), 지역농산물 브랜드 개발(바른유성찬),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직매장 설치, 행복누리재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공형.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14개소), 국 · 공립어린이집 확충(1개소)했다.

수요자 중심의 축제 및 교육 인프라 확충 – 10개 동 마을축제(8~10월), 유성온천문화축제(5월, 80만명, 260억원 경제유발 효과), 유성구 국화전시회(10월, 45만명 참여), 청소년 나비한마당(6만명 참여), 대학입시박람회(1만명 참여), 청소년수련관, 관평도서관 건립, 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개관 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구현

올해 변화되는 주요구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강화 – 종합스포츠센터, 건강100세 지원센터 등 인구 40만대비 도시인프라 확충, 셉테드사업(갑천근린공원), 마을버스 안심귀가제, 무인택배함 3개소 확충, 테마형 하천정비, 여가녹지공원 조성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된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구현 – 스마트오피스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어르신 일자리 복지사업 확대, 친환경급식 지원 어린이집 전면 시행, 공보육서비스 확대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된다.

교육기반 확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축제 육성 – 청소년수련관 개관, 도안도서관 등 교육투자 확대,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국화전시회, 동 마을축제를 주민중심의 유성3대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유성온천문화축제 : 5월, 유성구 국화전시회 : 10월중, 동 마을축제 : 8월 ~ 10월중 주요행사가 개최된다.

대덕구

대덕구는 2015년희망대덕 건설을 향한 실행로드맵 완성으로 본격적 성과 창출 기반 마련, 95년도 민선 자치 이후 첫 공공기관인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 소통과 청렴,섬김의 열린행정 구현

2015년 대덕구는 주민 소통과 청렴, 섬김의 열린행정 구현 – SNS를 통한 민관 소통관계망 확장 / 소통밴드(직원 900여명, 洞 주민 7,600여명), SNS서포터즈, 고객중심의 고품질 즉각 민원행정 실현 / '발딱, 후딱, 맘에딱'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공신력 확보와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실현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 장보기(12회/2,765명), 중리행복 벼룩시장(96천명), 산단 협력기능 강화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했다.

문화 · 관광 진흥과 쾌적한 정주인프라 확충 – 체험형 레저 문화시설 구축 활성화 /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대청수상레포츠센터, 금강로하스 타워,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 도시농업, 가족생태학교, 회덕향교 체험교실, 도심속 소통길(황톳길) 조성, 역사.문화 탐방 관광벨트 조성 추진, 연축지구 및 구)남한제지, 구)쌍용양회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시행 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프라 구축

올해 변화되는 주요구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프라 구축 – 연축지구 및 구)남한제지, 구)쌍용양회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 ▶ 연축지구(행정타운) 도시개발, ▶ 장동지역 스포츠타운 조성, ▶ 금강 새여울철새 서식지 조성 ▶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관리지원, ▶ 새롭게 상생(K–water, KT&G) 발전하는 혁신도시, ▶ 맘껏「보고.배우고.즐기는」축제 특화 육성, ▶충 · 효 · 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도시재생 등 7대 미래비전 정책과제의 가시적 추진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 – 중소기업지원단 발족 운영 등 경쟁력있는 산업단지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상인의 선진 경영 역량 강화,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주민이용공동시설(미호동) 건축, 석봉1통 경로당 건립,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 인적안전망 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된다.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 계족산성 활용 확대와 대청호, 금강 수변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집중 개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육성, 행복학습센터 운영되며 2016 금강로하스 축제 : 4월, 제20회 동춘당문화제 : 4월, 2016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 10월, 중리행복 벼룩시장 : 4월 ~ 6월, 9월 ~ 10월 주요행사가 개최된다.

김태선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신년사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쓸 것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존경하는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중소기업인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201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불요불굴(不撓不屈)' 을 꼽았습니다.

지난 한해 메르스 사태,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 전방위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헤쳐 나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동물로 상징되는 양의 해답게 위기를 헤쳐온 모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함께 2016년의 경영환경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 를 들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녹녹치 않을 것임과 이를 의지하고 협심하여 위기에 대처하자는 다짐을 내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해를 뜻하는 병신년(丙申年)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장수에다 부귀영화까지 가져다주는 동물로 상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능재주꾼에다 기회를 포착하는데 매우 재빠르고 판단력과 행동력이 뛰어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새해에는 이처럼 재치넘치고 활발한 경영활동으로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금년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와 유럽 제 국가의 역성장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불요불굴의 자세로 난관을 극복해 나왔듯 올해는 동주공제의 자세로 우리의 잠재력을 적극 이끌어내고, 중소기업간 협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는 이제 더 이상 경영 애로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경영인들이 맞서있는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를 타파할 차별화된 방법과 승부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과 수출을 지원하며, 고용창출, 시설투자를 위해 정책자금의 공급 등 적극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전한 안보의식 배양에 배전의 노력 기울일 것

임용호 대전 · 충남재향군인회장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군을 보살펴 주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丙申年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안보 현안문제 발생 시 안보단체를 중심축으로 응집된 안보 결집을 통한 대응력을 제고시켜 즉각적인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건전한 안보의식 배양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에 매진해 주시길"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

존경하는 충청남도 새마을가족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신 전 · 현직 도 회장님들과 시군회장님들 그리고 새마을가족 여러분 덕분에 보람 있고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과 나눔 · 봉사 · 배려의 실천덕목으로 깨끗한 충남 만들기 대 청결 운동, 김장 담가주기, 사랑의 노인섬기기 며느리 봉사대 운영, 3R 자원 다시 모으기,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독서문화운동,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오신 충남 새마을가족 여러분들의 사랑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 우리 새마을가족 한분 한분의 애뜻한 가슴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2016년 우리 새마을가족은 그동안 힘찬 열정으로 보여주신 감동과 사랑으로 제2새마을운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다시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새마을가족 한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새마을가족들이 사랑으로 뭉치게 됐다면 그것 역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도 우리 새마을가족들은 하시는 일에 나날이 번창일로 하시길 바라며 새마을가족의 가정에도 건강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새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화토탈, 新공정 태양전지 EVA 세계 제패

최초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 통한 상업생산 성공

세계시장 점유율 35%로 1위… 세계일류상품에도 선정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화토탈이 세계 최초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을 통한 상업생산과 제 2 EVA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를 통해 고부가 EVA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토탈은 자사의 태양전지 봉지재*용 EVA 제품(이하 태양전지용 EVA)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봉지재: 얇은 시트 형태의 제품으로 절연효과와 함께 수분이 전지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충격으로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과 장기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소재임.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인 제품 중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달러,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인 제품이다. 한화토탈은 35만톤 규모의 전세계 태양전지용 EVA 시장에서 약 35% 점유율을 달성하며 1위를 달성했다.

EVA는 Ethylene Vinyl Acetate(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의 약자로 운동화 밑창부터 태양전지 소재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성수지 제품이다.

특히 초산 비닐(Vinyl Acetate Monomer, VAM)의 함량에 따라 범용과 고부가 제품으로 나뉘는데 태양전지 봉지재용 EVA는 초산 비닐 함량이 28% 이상인 고부가 제품에 속한다. 초산 비닐 함량이 높을수록 같은 양의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부가 제품으로 분류한다.

한화토탈은 범용 EVA 제품의 경우 향후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앞세운 중국과 규모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기술 격차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EVA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을 적용한 EVA 2 공장을 완공하며 세계 최초로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을 통한 태양전지용 EVA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은 초고온 · 초고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파일럿 플랜트(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전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 건설이 어려운 단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을 통해 고품질 LDPE를 생산해온 경험과 더불어 파일럿 플랜트를 대신해 관형 반응기 중합 공정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하며 이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투명성이 월등히 높고 초고순도, 저수축성 등의 특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불량률은 낮은 태양전지용 EVA 제품의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오토클래이브 공정과 비교해 태양전지용 EVA 생산시 30~40%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한화토탈은 지난 2014년 2월 연간 24만톤 생산량의 제 2 EVA 공장을 완공하며 국내 단일업체로는 최대 규모인 연간 32만톤의 EVA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한화토탈은 태양전지용 EVA 제품에서만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한화토탈의 태양전지용 EVA는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중국, 중동 등 경쟁국 석화사들과 격차를 벌이기 위해 고부가 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시, 2015년 시정성과 평가 '긍정'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 올해에도 굵직한 기관 표창 올려

시정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를 달리는 아산시가 올해에도 굵직한 기관 표창을 올리며 구제역과 AI, 메르스까지 겹치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시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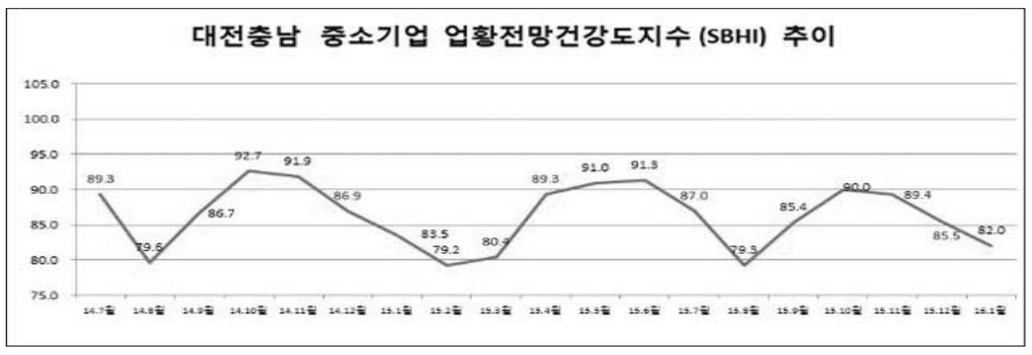
아산시는 충청남도 시군통합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하며 아산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렸으며, 특히 허가담당관 신설 등의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올 한 해 각종 대외 시정평가에서 40여 개의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평가결과가 연말연시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상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수상 분야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유공(국무총리),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국무총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고용노동부), ▲지역행복생활권 운영 최우수(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복지사업 평가 3년 연속 대상(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평가 우수(보건복지부),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단지(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 우수(환경부),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녹색경영부분 대상(한국일보),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건축물부문 대상 온양6동주민자치센터 선정, UNESCAP) 등 다방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공약실천계획 종합평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고,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충청남도) 우수,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국민권익위원회) 최우수기관에 선정 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는 행정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

복기왕 시장은 "시정의 다양한 부문들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 성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올 한 해 성과의 배경에는 모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고, 행정 혁신을 향한 공직자의 변화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세종충남,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다소 하락

전월대비 3.5p 하락한 82.0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찬회)가 중소기업체 26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 결과, 1월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85.5)대비 3.5p 하락한 82.0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중국 경기둔화 및 미국 금리인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다음 달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은 전월(87.7)대비 7.1p 하락한 80.6을, 비제조업은 전월(84.1)대비 1.2p 하락한 82.9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업체들의 최대 경영애로는 "내수부진(70.6%)"으로 조사됐고, "인력확보난(45.8%)", "업체간 과당경쟁(41.9%)", "인건비 상승(42.1%)", "자금조달 곤란(19.5%)"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애로사항 중 "인력확보난(39.9%→45.8%)", "업체간 과당경쟁(37.8%→41.9%)", "인건비 상승(32.9%→42.1%)", "자금조달 곤란(16.7%→19.5%)"은 전월대비 상승했고, "내수부진(80.2%→70.6%)"은 전월대비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1.8%)에 비해 0.8p 하락한 71.0%로 조사됐다.

송병배기자

에이제이(주), 사랑의 땔감 6톤 지원 아산시 영인면에 소재한 에이제이(주) 직원들은 지난 29일 관내 저소득층 2가구에 사랑의 땔감 6톤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15명이 참여해 직접 땔감을 나르며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어르신들의 가정에 희망을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 맥키스컴퍼니 함께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기영)는 ㈜맥키스컴퍼니(옛 선양, 회장 조웅래)에서 생산하는 지역 대표소주 O2린 25만병의 보조라벨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를 알린다.

평소 맥키스컴퍼니는 대전 계족산 황톳길 조성, 산상 무대 '뻔뻔(funfun)한 클래식' 정기공연 등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맥키스컴퍼니측에 보조라벨 홍보협력을 제안해 이번 '노후준비서비스' 알리기가 이루어졌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2016년 '여권 · 국제 운전면허증 one-stop 서비스'

청양군이 내년 1월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달 24일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 · 국제운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주민 서비스 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군청 민원실 여권접수 창구에서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여권 접수 민원인 중 희망자에 한하며 운전면허증 사진 1매,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 7000원을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약 5~6일 이내에 여권과 같이 받을 수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예측 못하는 산림재난, 특수진화대로 상시대응

중부지방산림청, 1월 8일까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모집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해마다 늘어나는 산불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2016년부터 신설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도시지역, 야간산불 등 접근난이도가 높은 산불현장과 확대되고 있는 여름철 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산불위험이 적은 시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사태 긴급복구, 피해목제거, 산불예방사업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임무를 연중 수행하게 된다.

모집은 충북권역과 대전 · 세종 · 충남권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로 체력검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하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공고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발생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돌발병해충,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산림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산불 뿐 아니라 여러 산림재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2014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전년대비 크게 증가

환경부,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 대상 농약사용 실태 조사 결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7.6% 증가한 총 159.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503개 골프장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ha) 당 농약사용량은 5.64kg/ha로 전년대비 사용량 5.50kg/ha에 비해 2.5% 증가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다.

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농약 사용 등록이 취소된 '패러콰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가 각각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전국 503개 골프장 중 45%인 228개 골프장에서 16가지 농약성분이 토양과 수질시료에서 검출되었다.

농약성분 별로는 전체 검출건수 1,939건 중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 442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다음으로 '플루톨라닐' 337건, '아족시스트로빈' 3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성분이 전체 검출건수의 약 56%를 차지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의 에코랜드와 경남의 의령친환경골프장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골프장의 코스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랜드는 2009년 개장 이후 미생물 농약(제제) 사용 등을 통해 계속하여 친환경 코스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의령친환경골프장도 2014년에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골프장 중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에서는 잔디 병·해충 방지를 위해 미생물농약 또는 토양미생물제와 같은 친환경제제를 사용하였고, 적극적인 인력투입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100%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코스를 관리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기여하고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리는 등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겨울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주시 관내 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관리자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실시의 적정성 ▲건축물의 불법사용 여부확인 등이다.

또한 관계인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가이드 배부 및 안내 방송, 긴급 상황 시 피난을 위한 피난 안내표지 부착 지도, 옥상 출입문 비상개폐장치 부착 홍보 등을 실시 중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이진일 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본부장,사회지도층의 특별한 보훈공감 실시 이진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왼쪽 두번째)은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지난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조성남 국가유공자를 방문,사회지도층의 특별한 보훈공감을 실시했다.

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 30일 관내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두 곳인 서북구 미라2길에 위치한 "헤라산후조리원", 서북구 노태산로에 위치한 "디어커피"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광성 청양소방서장명예로운 공직생활 마감 이광성 청양소방서장은 30일 소방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 자격요건도 강화

민간출신도 성과 탁월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발령이 허용된다.

파견복귀, 휴직복직 등에 따른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2개월 초과 기간을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고공단 성과향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사처장이 고위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후보자 자격을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늘리고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은 '성과 탁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고공단의 경쟁력은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사조치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인사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노사합동 무지갯빛 사랑나눔'

서천화력본부, 무지갯빛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 이어가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본부(본부장 전재순, 중부노조 서천지부위원장 신동주)는 12월 29일 연말연시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하는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서천화력 '무지갯빛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은 서천화력 전 직원이 모금운동에 참여하여 마련한 성금 약 1,200만원을 재원으로 서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선정된 서면지역 저소득층 50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서천군 복지시설인 에벤에셀모자원을 방문하여 시설 내 학생들이 더욱 밝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스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정복기자

태안해경, 연말연시 해상경계 강화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30일부터 1월 4일까지(5박 6일간) 평온한 해상 치안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해상경계 강화에 돌입한다.

태안해경은 관내에서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관광객 및 유·도선 등 이용객이 증가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상황대기자를 운영하며 경비함정, 122구조대는 비상출동 대응태세를 갖추고, 안전센터는 순찰정, 민자선 등을 동원하여 해안가를 수시로 순찰하며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감독하며 해양주권수호 임무를 탄탄히 하는 한편 유·도선 운항 시 정원초과, 음주운항, 주류 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대전교육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에 최우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유예기한인 2015.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홍보를 통해 대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2015년 12월 말 기준 100%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1,153대 전체가 신고를 완료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403대, 초등학교 41대 특수학교 27대, 학원 682대가 해당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차량도색 및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기준에 맞는 승강구 발판 설치, 후방카메라 등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최종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관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안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운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김정환기자

청양경찰서, 야광모자 제작 배부

어르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청양경찰서(서장 조기연)는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야광모자를 특별 제작 배부하여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회관 등을 방문 사고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해 야간에 운전자로부터 멀리서도 보행자가 쉽게 식별되도록 야광모자 500여개를 특별제작 각 마을회관 등을 방문 교통안전교육시 배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조기연 경찰서장은 "특히 이번 야광보자 제작 배부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르신을 내 부모님같이 생각하고 보살펴 우리 관내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양=정상범기자

<前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충희 대전창조경제추진특별위원장 임명

새누리당 대전시당 정용기 위원장은 29일, 남충희(사진) 前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전창조경제추진특별위원회(약칭, 경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용기 위원장은 임명 직후 남충희 위원장에게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또, 그로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경제특위에서 서민경제를 포함한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충희 경제특위 위원장은 "대전은 변해야 한다.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전의 미래는 없다. 근본적 변화는 경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부산과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접목시켰던 경험과 CEO로서의 경영마인드를 대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쏟아 붓겠다." 라며 각오를 밝혔다.

경제특위는 대전경제의 '활력저하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 대안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초 출범식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후, 산업구조 혁신, 기술창업 활성화, 강소기업 육성, 투자유치 촉진, 그리고 산업단지 및 도시 재생에 관한 과감한 정책을 발굴하는 토론회 및 발표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특위는 남충희 위원장과 함께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실물경제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산업계 인사와 학계·연구계·컨설팅계의 전문가를 조합하였고, 대전지역 인사와 타 지역 정책 수립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 이는 대전 내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선을 정책에 주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복기자

폴라리스봉사단, 물품나눔 봉사활동

폴라리스봉사단 7명과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덕구 비래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가구를 방문, 쌀, 고구마, 이불 등의 물품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폴라리스봉사단은 2013년 창단한 이래 대전지역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탄봉사, 급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2015년 30회 이상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폴라리스봉사단원들은 "봉사단이 준비한 물품들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아산 관내 소방시설관련업 관계자 간담회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30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아산 관내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및 공사장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에폭시, 우레탄 등 가연 물질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철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속 실시 당부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화환경 조성 등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병신년 (丙申年) 원숭이해 달라지는 제도

2016년 병신년 원숭해의 달라지는 제도를 간략히 모았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편집자 주)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진 점

2016년부터는 서류제출 또는 출력없이 온라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자녀양육과,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도시가스 요금이 현행보다 9%가 인하될 예정이다.

▲현역병 모집제도도도 달라진다.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했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자격증, 면허, 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위주로 맞춤 특기병 제도를 확대 시행(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한다. 고교 성적 반영을 폐지한 것은 군에 성적우수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기술 자격자 위주로 선발하기 위해서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올해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 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진로탐색 활동이나 예술 · 체육 활동 등 특별활동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학년마다 1학기 또는 2학기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된다. 자유학기제에서 오전에는 일반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밖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탐색 예술활동 등 170시간 이상 편성되어야 한다.

▲토익시험제도 부분 개편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토익시험이 듣기 영역의 경우, 사진을 묘사하는 Part1 섹션이 10문제에서 6문제로 줄어들고, Part2 섹션도 30문제에서 25문데로 줄어든다. 대신 Part3섹션은 30문제에서 39문제로 늘어난다. 대화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횟수는 증가하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세 사람으로 구성된 대화문도 포함될 예정이다. 읽기 영역의 경우,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Part5의 경우,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들고, Part6의 경우는 12문항에서 16문항으로, 독해 영역인 Part7은 48문항에서 54문항으로 늘어난다.

▲고가차 자차보험료 인상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것이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구랍 29일부터 4.7%인상됐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대전 구간을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만 8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3.4% 오른다.

▲2016년부터는 '60세 정년제'가 의무화 된다.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60세 정년제'가 의문화 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금액은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이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와 임산부제도 확대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장려된다. 아빠의 달 제도(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는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산부를 위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가 기존에는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실시됐지만 내년 3월 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 된다.

▲10년 이상 부모님 모시면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 신고 가능해져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휴대전화 음성 · 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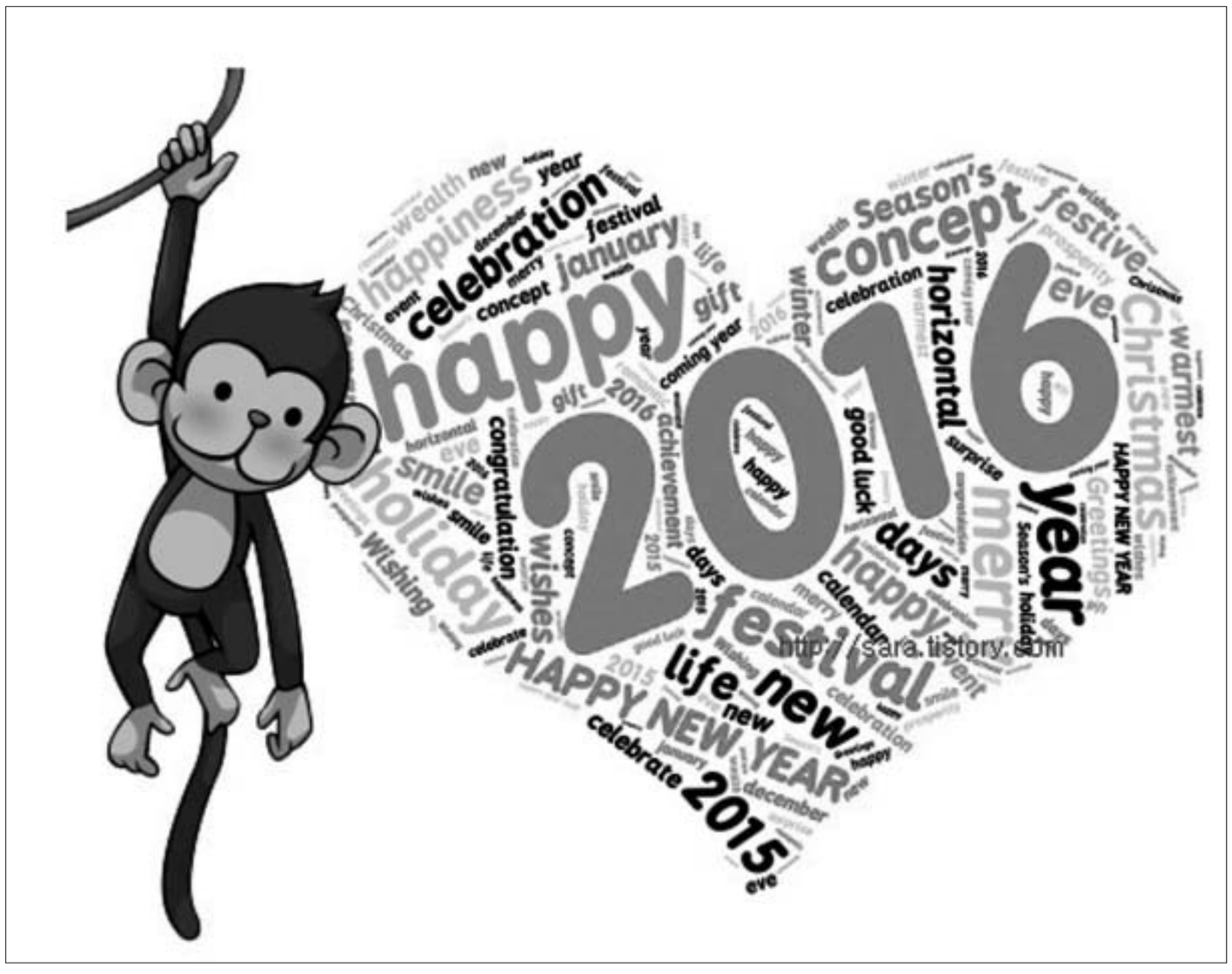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 · 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작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 가능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게 하려고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대전시의 2016년 달라지는 제도

▲조직 개편과 인사분야 제도 개선

우선 2016년 대전시는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3급)이 신설되고 한시기구였던 과학문화산업본부와 경제산업국이 통합해 과학경제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자치행정과에 인권담당이 신설돼 인권보호를 위한 64개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중교통과 인권 보호가 병신년 대전 시정의 키워드인 셈이다.

이에 시 조직은 내년 1월 1일부터 2실 7국 3개 본부 57개 과에서 2실 7국 1단 2개 본부 58개 과로 재편성된다.

인사분야 제도 변화와 개선도 눈에 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시범운영 된다. 시는 3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자질을 평가해 승진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한다. 사회복지분야와 재난분야는 2년으로 바뀐다. 승진임용배수도 결원 1명은 7배수, 2명은 5배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가칭 '우물안 개구리 탈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외부 인재 영입 및 인사교류 추진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외연 확대 및 외부 지원 세력을 구축한다.

▲도약하는 대전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한 단계 도약에 나선다.

우선 복지분야에서는 대전시민복지기준 대시민 발표 및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6개 분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면서 대전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개구(중구, 대덕구) 9개 센터로 운영되던 희망복지지원단 '희망티움센터'는 4개구 20개 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와 생활임금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금피크제는 시 산하 공사 · 공단 전직원 대상 정년 3년전부터 임금감액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생활임금제는 시 소속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일용직 등) 근로자 484명에 대해 최저임금 6030원의 117%에 해당하는 7055원을 적용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부분에서는 대전역~세종~오송역 광역 BRT 운행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에서 외삼(유성~세종BRT)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도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시내버스 역시 신개념 서비스 융합 및 공영기능 강화에 나선다. 수요비례형, 급행좌석, 간 · 지선을 융합(환승)시켜 새롭고 고급화된 노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영차고지 추가확보와 책 읽는 소통 정류소 조성, 세차기 확충 등 이채롭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도 만나볼 수 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제야행사 열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광장에서 2015년 한해의 보람을 함께 나누며 새해의 희망을 충전하는 제야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부터 2016년 1월 1일 오전 0시 20분까지 펼쳐지는 제야행사는 '우리 세종, 2016 나래 펴다'라는 주제로, 음악공연, 송구영신 메시지 나누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레이저 영상쇼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흥겨운 풍물패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밴드, 비보잉, 팝페라 등 음악공연이 95분간 펼쳐지고, 이어서 주요인사 및 시민들의 송구영신 메시지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23시55분부터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무대 뒤편으로 소망의 달이 떠오르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0분간 레이저 영상쇼가 펼쳐지면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새해 소망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소망나무 만들기' 와 그림과 글로 시에 바라는 점을 건의할 수 있는 '세종시에 바란다' 등의 시민참여 코너와 세종시 로컬푸드 가래떡과 군고구마 나누기, 우리꽃차 시음 코너도 운영한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제야행사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가족 및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예산군 각종 보건사업 추진

예산군보건소는 올해에 이어 2016년 '건강생활 실천으로 행복한 예산구현'을 목표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소는 올해 5대 성과로 ▲보건소 이전 신축 공모사업 확정 ▲치매재활센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및 시설 확충 ▲출산장려시책 확대시행 기틀 마련 ▲철통같은 선제 대응으로 메르스 환자 '제로' ▲2016년도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 검진 유치 등을 꼽았다.

또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과 감염병 관리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군에서 실시한 부서별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91.1점을 받아 우수상을 받는다.

보건소는 2016년도에도 감염병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보건소를 총 사업비 99억1500만원을 투입 장애인과 정신, 치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시설을 갖춰 건축면적 38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장려시책 확대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며, 셋째 이상 다자녀 고교생 수업료와 대학 입학 축하금 지급, 다둥이 가정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아울러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치매예방재활센터운영을 통해 재가 치매노인 가정방문, 치매 조기검진, 경증치매 환자 노인유치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독거남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식단조리법 교육을 비롯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우울증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실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 가정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보건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백세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2014년 시·도 간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분석 결과

충남 전입자 2명 중 1명 '수도권 주민'

지난 10년 동안 다른 시·도에서 충남으로 전입해온 사람 2명 중 1명 이상은 수도권 주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타 시·도 간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5~2014년 전입자는 139만3522명, 전출자는 127만2608명, 순전입자는 12만914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도내 전입은 경기가 41만389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4만7716명, 대전 21만2914명, 인천 9만7790명, 충북 7만9292명, 전북 6만7461명 등으로 수도권 3개 시·도가 전체 전입자의 절반 이상(75만9399명, 54.5%)을 차지했다.

도민이 전출한 지역 역시 경기가 37만1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만9442명, 대전 21만7872명, 충북 7만9437명, 인천 7만8395명, 전북 6만1177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순전입자(전입자-전출자)는 경기 4만2234명, 인천 1만9395명, 경북 1만2977명, 부산 9375명, 전남 8357명, 서울 8274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지역은 충청권 3개 시·도로, 세종 6909명, 대전 4958명, 충북 145명 등이다.

대전으로 전·출입하는 주민의 수는 증감을 거듭하고, 충북은 2006~2008년 전출이 많았으나 2009년 이후에는 대체로 전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세종의 경우는 지난 2012년 출범한 이후 줄곧 전출이 많았다.

제주는 2011년까지 전입이 많았으나, 2012년부터 전출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연도별 순전입자는 2005년 4999명, 2006명 7055명 등으로 점차 증가해 2011년 1만8641명으로 정점을 찍고,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9849명으로 꺾인 뒤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것은 도의 지속적인 국내·외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의 인구 상승이나 타 지역에서의 전입이 많은 것은 '행복 충남'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분석 자료는 도정 각종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이지웅기자

세종민속문화의 해 엠블럼·주제어 공모

市 민속문화·세종대왕 등 담은 작품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과 함께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를 상징하는 엠블럼 및 주제어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세종시 용암 강다리기, 세종대왕, 금강 등 세종시의 민속문화와 유·무형 문화유산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세종시청 홈페이지-행복도시세종-새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란에서 제공하는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작품(AI 및 JPEG 파일)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엠블럼에 주제어를 포함해 응모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종시에서 필요한 경우 엠블럼과 주제어를 부문별로 별도 선정할 수 있다.

당선작 발표는 1월 중순이 될 예정이며, 당선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한다.

상금은 최우수 1명(200만원), 우수 2명(100만원), 장려 3명(5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 민속문화T/F팀(044-300-34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내외 타 공모전에 입상한 바 있는 작품을 표절 및 모방,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응모자가 진다.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세종시에 있으며,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 홍보사업 및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되고, 필요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역 민속문화의 체계적 조사·발굴을 통한 보존 및 전승과 활용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7년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2015년 1월 15일에 경기도에 이어 10번째로 공동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김정환기자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

지난 6월 치러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가족과 선배 공무원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공직 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세종시교육청은 12월 30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7명의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되기까지 물심양면의 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각자의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임용장 수여식은 자녀의 목에 공무원증을 직접 걸어주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모습으로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 특성화고 고졸 성공시대 열렸다

최종 20명 합격… "국가경제 발전 큰 기둥 역할 다할 것"

충남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20명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남도 공무원시험에 1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시험에 6명, 충남교육청 공무원시험에 3명이 합격했다.

충청남도 공무원시험 학교별 합격자는 충남해양과학고 4명, 주산산업고 2명, 합덕제철고와 부여전자고, 예산전자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풀무농업기술고가 각각 1명씩이다.

또 행정자치부 공무원시험에 6명(천안여상 2명, 충남인터넷고 1명, 청양고 1명, 서산중앙고 1명, 천안제일고 1명)과 충남교육청 공무원시험에 3명(천안공고 3명)이 합격했다.

충남 특성화고 학생들은 2012년 18명, 2013년 16명, 2014년 11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어 충남 특성화고의 교육성과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는 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취업과 공무원 공채를 준비하는 동아리활동,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주말 특별반 운영 등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기르고 해당분야에서 요구하는 사무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허윤 미래인재과장은 "충남 특성화고 학생들은 매년 우수기업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합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우수기업 취업과 관련분야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고졸 성공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더 나아가 이들이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샛골마을 이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 발간

공동주택의 새 주거유형 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설계 공모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1생활권(세종시 다정동) 공동주택의 특화개념과 설계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형태의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를 발간·배포(A4크기 234쪽, 500부)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복도시에서의 획일화된 공동주택을 탈피하고 공동주택의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시한 2-1생활권의 다양한 모습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시행됐다.

책자에는 2-1생활권 P1~P4로 구성된 4개 설계공모 단위권역에 대한 설계공모 추진배경 및 경과, 설계개념, 디자인 특화내용, 색채, 경관 등의 내용을 삽화를 통해 기술했으며, 부록으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도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발간작업은 설계공모를 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유관기관과 각종 협회, 대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전자파일을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에서 진보하는 공동주택 주거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건설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준이 함께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사업 운영기관 모집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등 대상

충남도는 2016년도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사업을 수행할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사업은 지속가능한 충남형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활동가를 현장에 배치하여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부(지부)를 두고 사회적경제 관련사업·활동을 1년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으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근인력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조합 및 연합회 포함)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로, 충남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도 경제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내년 1년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 및 당사자 조직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장 모집 및 청년활동가를 모집·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포=이지웅기자

신/년/사

기반시설·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

김석환 홍성군수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수 김석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홍성군정은 7백여 공직자들의 열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6개 분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등 47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18억3천5백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5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78억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분야에서 홍성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보람되고 자랑스런 한 해였습니다.

이는 모두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은 도청 이전 4년차를 맞아 인구와 세수가 늘고 창업과 고용률이 증가하는 등 행복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7백여 공직자 모두는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청 수부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홍성군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면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청 수부도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품격 있는 선진 홍성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낡고 비좁은 군 청사 이전을 공론화하여 적지를 선정하는 한편 시 승격을 위한 준비와 시가 되었을때 '홍주' 지명 사용문제를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 여성 및 가족 친화도시 선정, 평생학습도시 및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등 그동안 홍성군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 승격의 전제조건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임기내에 채무없는 홍성군을 만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황선봉 예산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새해 첫날 아침 힘차게 솟아오르는 첫 해를 보면서 올 한해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군정,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펼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다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한해는 군민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힘을 모아 주셔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군민여러분께서 우리 군정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하나 확보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는 섬김행정,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투명하고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돌보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충남의 중심지로서 산업형 관광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이 있는 예산! 더 나은 예산! 행복한 예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예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문화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때 충남의 중심지로서 산업형 관광도시로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군정,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펼쳐 군민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행복한 예산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 새해 군민 모두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당진시 2016년도 신 성장동력 육성 총력

화력발전소 온배수열 활용한 농어업 시설단지 조성 · 당진형 3농혁신 등 7개 부문 사업 추진

당진시가 올해 마련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신 성장동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농어업 시설단지 조성 ▲당진형 3농혁신 ▲해양관관산업 육성 ▲당진항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육성 ▲철강산업 고도화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7개 부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농어업 시설단지 조성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수출 주력품목 육성에 나서게 되며 지역혁신 특화사업 및 농업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당진형 3농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국가거점형 왜목 마리나 항만조성, 전국해양학자대회 유치를 통해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당진항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당진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진행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종합운동장 확장사업, 야구장 건립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철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속산업 육성사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적극 유치에 나서게 되며 중국단동시의 경제무역 박람회,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나서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제14대 김정호 부군수 31일 이임

탁월한 분석력과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2년간 군정 발전 온 힘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제14대 김정호 부군수가 2년간의 소임을 모두 마치고 정든 태안군을 떠난다.

군은 오늘(31일) 군청 대강당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해 가족,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태안군 김정호 부군수 이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 출신의 김정호 부군수는 지난 1982년 충청남도 상공운수국 공업과로 공직에 입문해 충청남도 수출공업과, 중소기업과, 국제통상과를 거쳐 기업지원과장,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파견, 재난민방위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뛰어난 행정력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신망을 쌓아왔다.

특히, 지난해 1월 태안군 부군수로 취임하면서 빠른 군정 파악으로 내부행정을 아우르는 동시에 군민 숙원사업과 대형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발품을 아끼지 않는 현장행정을 펼쳐 군정 발전을 이끌어왔다.

아울러, 탁월한 분석력과 기획력, 그리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상기 군수의 군정 운영을 조화롭게 뒷받침하는 한편, 부서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 토론회'를 활성화해 군정의 현안해결과 안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온화한 성품과 지도력으로 직원들을 아끼고 배려해 내부적으로는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쳤으며, 각종 행사현장 등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큰 신뢰를 얻었다.

김정호 부군수는 "아름다운 휴양도시 태안군에서 부군수로 일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으며, 태안군에서의 2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태안군의 영원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신년사

시민들의 삶에 여유와 넉넉함을 만들어

김홍장 당진시장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2016년 병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리함을 상징하는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진시도 지속적으로 행복한 변화들을 주도하면서, 살고 싶은 당진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삶에 여유와 넉넉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당진시는 지난해의 많은 성과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를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계승발전 시키고, 당진형 3농혁신이 당진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진의 젖줄기인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과 더불어 전국 최대 규모 베드민턴장 건립, 1조 9,405억원의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빠름보다 내실을 다지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 당진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씽크탱크를 가동하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통해 시민여러분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당진시는 작년에 생산성대상 최우수상과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 당진형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평생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계분쟁, 철탑 · 변환소,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등 시정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진중하고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역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2016년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녹색도시 아산, 물 · 사람 · 자연과 함께

아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이하 실개천 사업) 사업이 인근 시 · 군을 관심을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마을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실개천(도랑) 살리기 사업이다.

시는 2015년을 '주민주도형 실개천 살리기 해'로 정하고 실개천 · 도랑 복원 및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36개소에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주민 · 기업체 · 환경단체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마을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을주민이 주도하고 가꾸어가는 실개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6개 마을에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수질개선 및 수생 생태계가 복원돼 예전에 볼 수 없었던 1급 어종인 가재, 버들치가 서식하는 실개천으로 탈바꿈했으며 주민 스스로가 친환경마을 만들기 공감대 형성 및 주민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실개천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마을 공동우물 복원과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자연마을의 생활 오수유입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마을어귀 웅덩이를 활용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도고면 화천1리, 음봉면 동천2리, 염치읍 동정리 등 3개소에 시범 조성해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전통생활문화 보존 및 생태학습장을 제공했다.

특히,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성공사례가 충청남도의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정책사업으로 확산돼 5개년 간 도내 도랑 매년 60개소 총 300개소의 도랑 살리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5년 4월 제7회 세계물포럼 물환경 우수정책으로 선정 발표, 9월에는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워크숍에서 「배방읍 공수1리 원공술 마을의 도랑살리기」 사례를 발표하는 등 아산시 정책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널리 전파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녹색에너지 대상(녹색경영부분) 수상, 2014~15년 2년 연속으로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같은 아산시의 실개천살리기운동의 성공 요인은 하천 · 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길 최상류인 실개천의 관리 필요성을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인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단팀(실개천생태팀)을 구성해 주민과 사회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과, 마을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실개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민 의식을 변화 시켰으며, 환경단체의 전문가 의식, 맞춤형 환경교육, 기업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질적 구축 운영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2016년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2018년까지 45개마을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개천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8개마을에 자연정화생태습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마을 및 하천 특성을 고려한 실개천 수생 생태계 복원과 자연마을 생태정화습지를 조성해 수질개선과 및 생태체험마을 조성에 역점추진토록 하고 주민스스로가 실개천 유역 환경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해 마을 리더(주민)에 대한 맞춤형 환경의식 개선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기업 및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개천복원과 연계한 희망마을 마을 만들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마을 주거환경 개선, 실개천 소유역 환경정비, 친환경농업 등 실개천살리기운동이 주민참여 친환경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국내 최초 토종 대하 육종 성공

0% 가깝던 토종 대하 양식 생존율 70~80%로 끌어올려

태안군의 한 민간업체가 국내 최초로 토종 대하 육종에 성공하며 대하 주산지 태안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군에 따르면, 남면 당암리 '해양플러스 양식장' 대표 박병지(62) 씨는 폐사율이 100%에 육박해 양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토종 대하의 실내 육종을 시도,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생존율을 70~80%까지 끌어올려 토종 대하 양식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토종 대하는 씹을수록 달콤한 맛이 감돌고 비린내가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어민들이 양식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폐사율이 매우 높아 전국 400여 개 새우 양식장 중 토종 새우인 대하를 키우는 곳은 열 곳이 채 되지 않는 등 양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자연산 수확에 의존해왔다.

30년 이상 양식 경력에 흰다리새우의 국내 최초 이식에도 성공한 바 있는 양식 전문가 박병지 씨는 토종 대하도 흰다리새우처럼 실내 육종이 가능할 거라 판단, 3년 전부터 토종 양식 대하의 생존율 높이기에 주력했다.

그는 5000㎡ 면적의 배양장을 갖추고 인위적으로 교미 후 알칼리 천연 광천수를 사용해 무균상태에서 알을 부화시키고 배합사료 대신 갯지렁이와 꼴뚜기, 굴, 홍합과 같은 고급 사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특히, 양식 생존율이 30~40%에 달하는 흰다리새우의 경우 양식 시 움직임이 적은데 비해 토종 대하는 활동량이 많아 사료보다 불순물을 더 많이 먹는다는 점에 착안, 순치(順稚) 개량을 통해 움직임이 적고 병에도 강한 토종 대하를 육성하면서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육종에 성공한 토종 대하는 흰다리새우보다 생존율이 높고 생산비용도 적어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분양 가격은 치어 한 마리당 10원 선으로 흰다리새우와 비슷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최대 크기로 자라며 양식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이 박병지 씨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5개 업체에 분양을 시작하는 단계로, 배양장 면적이 협소해 어미새우 3000마리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나 내년 배양장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검역증 발급 절차가 복잡해 현재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적극적인 해외 수출에 나서 토종 대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군민 안전 지킴이 '제3의 눈'

청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제3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및 재난 · 재해 감시, 어린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올해 신규 설치된 160여대의 카메라를 비롯해 군 전역에 설치된 총 650여대 카메라의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유사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 ·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가동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문을 연 CCTV 통합관제센터는 1년여 동안 170여 건의 유관기관 공조와 사후 증거 확보 및 사건 · 사고 사전 예방에 활용돼 실시간 검거 3건, 화재예방 1건, 행방불명자 발견 2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꾸준히 차량추적 및 피사체 위치파악 훈련에 주력해 물 샐 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 매우 우수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15년도「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표 중 제안 실시율 부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중 1위를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를 '국민행복제안'과 '정책참여'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국민행복제안' 부문에서는 아산시가 기초자치단체(시) 중에서 1위를 달성했으며 '정책참여' 부문에서는 충청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시는 2015년에 국민제안 522건을 접수하여 39건을 채택하고 그 중 22건을 실시하여 제안활성화에 앞장섰다. 올해 초에는 제안을 실질적인 행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개인 및 부서에 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담당부서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정책참여'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조례 제 · 개정 시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아산시도 조례 제 · 개정 시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공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참여율을 향상시켰다.

아산시는 2013년에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상을 수여받은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행복제안' 활성화와 더불어 '정책참여'에서도 더욱 힘써서 운영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 기자

신년사

13만의 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대도약

황명선 논산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꿈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속적인 저성장시대의 경기 둔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극복해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 · 소통과 참여 ·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논산 100년 새로운 도전과 발전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기본설계를 디자인하고 그 기틀을 다져왔다면, 올해부터는 새롭게 도약하는 논산의 미래를 열어갈 발전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13만의 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을 더욱 알차게 지원 · 육성하여 사람중심의 공동체경제를 실현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인 청 · 장년층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취업하기 좋은 논산, 시민이 행복한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논산을 수준 높은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에 소재한 서원 · 향교 등 유교문화자원을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과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반영하고,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부여 · 익산의 백제문화와 연계하는 관광자원 발굴, 고려시대 사찰문화재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혜택이 부족하지만, 논산 미래의 중심인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국회 · 청와대 방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고 싶은 대학탐방'은 지속적으로 추진,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참가하는 창의성과 좋은 인성, 국제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을 운영,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과 취약세대에 대한 사전 점검과 더불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행정을 위해 재난대응 훈련과 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방축천 · 연산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체계적인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산시 CCTV관제센터 운영으로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안전 논산'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역량 강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을 위해 시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정착'을 선도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가장 논산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희망도시 논산,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논산을 위해 9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6. 1. 1.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 마무리

작년말 1개 업체와 입주계약 · 잔여 8필지 8만5000㎡ 사업협약 체결 따라 2016년 초 계약

천안시가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조성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제5일반산업단지는 총 부지면적 152만3000㎡로 현재 8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87만3000㎡ 중 잔여 9필지 9만8136.5㎡가 남아있다.

잔여필지 중 8개 필지 8만5092.9㎡는 1개 업체와 지난해 사업협약서 체결에 따라 2016년 초 계약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1필지 1만3043.6㎡는 12월 30일 계약을 함으로써 사실상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5산단은 50여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및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제5산업단지내 33만6000㎡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현재 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및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지난 8월 일본의 파커라이징, 말레이시아 넥스트글라스와 MOU을 체결하는 등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의 잔여필지에 대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에서 연내 6필지 5만3762.3㎡에 대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5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입한 지방채 2362억원 중 1424억원을 이미 상환했으며 나머지 938억은 계약잔금 납부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신소재산업, 첨단부품 산업, 조립금속 분야 등의 70여개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5000여명의 고용창출과 300억원의 지방세 확충은 물론, 1만4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돼 천안 동부지역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거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제5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2조원에 달하는 경제유발 효과와 함께 동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김정환기자

2015년 시민과 함께 한 논산시정

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정책 으뜸… 가장 사람다운 도시 발돋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2015년 한해 동안 행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성과로 많은 지역발전 동력을 구축, 전국에서 주목받는 혁신행정 1번지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부활'에 이은 위수지역 조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 9월 면회 위수지역 조정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연간 130만에 이르는 훈련병과 가족들의 편의 도모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으며, 영외면회제 부활로 지역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구축을 위한 탁월한 창조와 혁신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광역 · 기초 중 단 2곳만이 'CSV(공유가치창출) 포터상' 수상의 영예를 안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방교부세 2227억원, 조정교부금 174억, 국도비보조금 1967억원 등 2016년도 정부예산 4368억원을 확보, 2015년 예산대비 50억이 증가해 서민생활안정,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 동력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황명선 시장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행정 혁신에 주력해 2014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선정에 이은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전국 최우수를 비롯해 독거노인돌봄사업 1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평가 옴부즈만 부문에서 전국 1위 수상 등 4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 다양한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힘입어 황명선 시장은 3년 연속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하면서 선도적인 세일즈 시장으로 인정받았다.

산업(농공)단지 조성은 2010년 약 110만㎡에서 2015년까지 약292만㎡로 증가하였고, 양지2농공단지 동양강철그룹 등 4개사, 강경농공단지 한미식품, 동산일반산단에 ㈜모나리자가 정상 가동중이며 디와이메탈웍스, ㈜코캄과 투자협약을 체결, 내년 3월부터 공장건축을 시작으로 기업이전 및 정상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국최초 타운홀 미팅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등 '시민중심' 행정을 모토로 한 섬김행정 구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평가 옴부즈만 부문에서 전국 1위 성적표를 받아 부단한 밀착행정 추진 노력을 입증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역사문화자원 보존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도 자리매김 한 한해였다. 테마있는 문화예술공연, 문화의 거리 등 작은 음악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단체 지원 등에 힘써 보편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났으며 돈암서원은 한옥마을 체험 3촌 조성사업 추진으로 예학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노강서원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독거노인돌봄사업 전국 1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어 전국 제일 효(孝)도시에 한발 더 다가서는 등 복지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명품교육도시 실천을 목표로 민선 6기 공약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원',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체계 구축' 사항을 적극 추진해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조직개편 시 평생교육과를 신설해 기틀을 마련, 그 결과 교육부 주관 2015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부각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청소년들의 문화수준 함양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시가 직영하면서 청소년 동아리 길거리 공연 활성화, 청소년 희망콘서트,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논산시 청소년들을 황명선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지역의 미래 동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밑거름으로 작용, 대한민국 최초로 관내 13개 고등학교 총 1,900여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육성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논산시 관내 청소년들이 지구촌 새로운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제녕시 청소년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해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농업 6차 산업화, 친환경농업 지원 등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융 · 복합형 농업 육성에 주력했으며 러시아 그라스프사, 미국 H마트, 일본 하나마사마트 등 해외 수출과 내수판로 개척에 힘써 논산딸기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수출되고 있다.

황명선시장은 "올해는 행정이 시민을 찾아 가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와 소통행정'의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집중한 한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황시장은 "올해 시민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에너지가 큰 힘이 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끝으로 황시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 확인했던 논산의 가능성을 발판으로 삼아 가장 논산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희망도시 논산,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논산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논산=한대수기자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서리 보호대 설치

서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형식)는 집안 곳곳의 모서리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타박상과 골절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르신의 가정에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시설과 단체, 기관 및 노인복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분과 주관 이루어졌으며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나문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장은 "집안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 모서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과 같은 작은 노력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분과(노인분과, 영유아분과, 통합사례관리서비스분과, 여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의료분과, 장애인분과)는 올 한해 자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서천지역을 밝게 빛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시 제3기 청소년자율방범대 소양교육

야간 방범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대처요령법 등 교육]

계룡시자율방범연합대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계룡시 안전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3기 계룡시 청소년자율방범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 방범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및 방범활동 능력향상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구축 된 계룡시 청소년자율방범대는 지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우범지역 순찰 및 또래 학생 등하교 지도 등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며 살기 좋은 계룡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봉사단체다.

현재 3기째를 맞고 있는 청소년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아 모집인원 40명을 초과한 80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탈선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봉사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에는 총 1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약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을 순찰해 각종 사건 · 사고를 예방하는 등 지역 치안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룡=주선웅기자

이용우 부여군수, 세계유산 등재로 글로벌 관광도시 일궈

이용우 부여군수는 "올해도 품격 높은 문화도시, 경제도시로서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각 분야의 경쟁력을 월등히 높인 뜻 깊은 한해였다"며 "먼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음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서동연꽃축제가 야간 · 체험형 축제로 운영되어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히트상품으로 발전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중 2년 연속 우수축제에 선정됐다"며 "백제문화제는 세계유산과 함께 도심형 축제로 전환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 · 외 관광객이 즐기는 글로벌 역사축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또한 노인복합단지에 5백억원대 민간 투자협약을 체결해 2020년까지 8개 과목을 진료하는 준종합병원 기능의 요양병원, 3백여 세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 명실상부한 전원형 실버타운 탄생을 예고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4회 국가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굿뜨래 2창업을 통해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두레기업, 밤가공 활성화 지원사업 등 80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해 굿뜨래 신(新)유통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군은 전국 군단위 최초로 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2015 안전문화 공모전"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는 등 군민 누구나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되는 안전도시 위상을 확립했으며, 2015 국가브랜드 대상, 2016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선정,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대상,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 군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글로벌 도시 부여 · 희망도시 부여로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꿈에 도전하고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31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2015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개최하고, 한해 군정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과 미니콘서트를 진행한다.

김태선기자

2016 시정화두 '위민탄금(爲民彈琴)'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6년 한 해는 백성을 위해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뜻의 위민탄금(爲民彈琴)을 시정의 화두로 삼고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늘리고 시민과 함께 시정 청사진을 그리면서 시민 행복지수 향상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창의시책 제안제도, 시장과 만남의 날, 직소민원 창구 등을 건전한 시민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 창구로 정착시켜 '함께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올해보다 더 많은 양질의 기업 유치에 힘쓰는 한편 고속도로 IC 주변 개발방향을 정립, 귀농 귀촌 확대를 위해 시범단지, 전원마을 조성을 검토하는 등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재원 투입을 확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말 관광객의 전통시장 체험을 위한 토요장 개장 등을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화 작물 육성,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한우 브랜드 육성 등 농촌 활력화 시책을 추진, 농촌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도시에 걸 맞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공산성 주변 정비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을 통해 고도 복원에 역점을 두고 숙박시설 정비, 주차장 확대 등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세계유산을 품은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곰나루 뱃길 복원 사업 추진,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과 공주역사인물 박물관 건립, 백제문화제의 내실화 등을 통해 희망담은 명품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첫 문을 열은 공주시민대학을 21세기 선진 시민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작은도서관 확충,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에서는 2016년 예산의 26%인 1,236억원을 투입,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비롯해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 영유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원 봉사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실현 맞춤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기획조정팀 김정태 팀장은 "올해는 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다시 맨다는 뜻의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백성을 위해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위민탄금(爲民彈琴)의 마음으로 시정의 계획된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 행복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5 보행 안전 개선사업 서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서산시가 추진한 '2015년 보행 안전 개선사업'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중심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45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6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차량 위주의 도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기여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갈등 극복,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등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문초등학교 외 12개 학교에 안전대기장치 설치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정책에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이창영 도로과장은 "어려운 보행안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최고의 보행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는 등 보행 안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 농특산물 세계인이 주목했다

지난해比 무려 135% 수출 증가… 해외 판촉행사 개최 · 양배추 수출 등 공격적 마케팅 주효

서산시 농특산물 수출이 지난 해 대비 큰 성과를 냈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의 올 한해 농특산물 수출 실적은 9,536천불(112억원)으로 지난해 7,037천불(78억원) 대비 135%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폭은 엔화 가치 하락, 중국의 소비둔화, 원자재값 상승 등 농식품 수출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수출국도 미국, 호주, 대만, 중국 등은 물론이고, 베트남, 뉴질랜드, 일본 등 7개국으로 확대됐고, 품목도 젓갈류와 닭고기 위주에서 한과, 편강, 시래기, 무말랭이, 천일염, 호박죽 등으로 더욱 다양화 됐다.

수출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시의 수출 지원 기반 구축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수출 대행 중견기업인 삼진글로벌넷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10월 미국 현지에서 농식품 수입 · 유통업체 왕글로벌넷과도 협약을 통해 서산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 지원 약속도 받아냈다.

아울러, 이들 업체와 손잡고 4일간의 미국LA 한인축제 행사장과 8개소의 한인마트에서 약 20일간의 판촉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뤘다.

특히, 이완섭 시장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TV, 라디오 등을 통한 언론매체 홍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약 2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서산시는 현지 수입업체의 '선결재구매' 시스템을 이끌어 내 참여업체의 수출대금 결제와 잔품처리 걱정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1차 농산물 수출확대 시책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배추 수출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인천, 부산 등의 수출업체를 찾아 직접 협의하여 지난해 60톤보다 1,127톤이 늘어난 1,187톤을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하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서산시는 올해의 성과와 미국 판촉행사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6년도에도 수출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렵게 만든 수출 지원 시스템을 십분 활용해서 미국 등 기존 수출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FTA체결 등과 연계한 중국, 베트남 등의 신규시장 공략에도 더욱 힘써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수출시장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며, "내년에는 교포시장을 직접 파고들어 해외시장을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틈새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군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기반 구축

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 · 무농약 묘삼생산 등 5개 사업 추진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인삼안정생산기반 구축에 나섰다.

하우스시설을 이용한 무농약 묘삼생산, 유기농인삼 시설재배, 생력재배를 위한 무인방제시스템, 고압세척기와 기능성 포장재, 클러스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했다.

인삼 병충해 방제 및 관수가 동시에 가능한 무인방제 시스템을 4ha 면적에 도입해 농가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결 하였고, 수삼 장기 보관을 위한 고압세척기 및 기능성 인삼포장재를 보급했다.

시설 하우스에서 친환경 인삼재배를 위한 점적관수 시설, 간헐적 포그시스템 도입 등 인삼재배에 적합한 환경조성 시설투자로 친환경 인삼재배의 가능성을 크게 열었다.

또한 인삼재배 시설내 묘삼전용 배드, 인삼전용상토를 이용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묘삼을 생산 및 유통을 시켰으며, 2016년 사업과 연계하여 청정(우량)묘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및 쌈채 인삼 생산에 필요한 잔류농약 걱정 없는 무농약 묘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어려움 등은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친환경 재배교육, 현장견학을 실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조율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안전한 인삼생산을 위한 무인방제시스템, 국내육성품종보급, 연작장해경감 등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묘삼 및 쌈채인삼을 통한 다양한 소비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전화번호부 달아주기 운동

보령시 청소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구축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전화번호부'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청소면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 복지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건강이상과 긴급 · 위기상황 시 빠르게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 A4 종이 한 장에 비닐코팅으로 제작해 달아주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전화번호부' 에는 가족, 친 · 인척, 가까운 이웃, 마을이장, 면사무소 복지담당, 응급구조, 화재신고, 경찰서 등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어 갑작스러운 긴급 · 위기상황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부는 주민호응이 좋아 일반 주민들의 제작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앞으로는 취약계층 외에도 일반주민들에게도 제작 · 배부 할 계획이다.

보령=김태선기자

신/년/사

一念通天의 자세로 창의 · 역동시정 견인

이완섭서산시장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201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17만 3천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어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미래 서산 100년의 초석을 견고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상승과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잔나비의 해인 올해에는 우리경제와 가계살림이 나아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희망찬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기반을 토대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 뜨는 서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전벽해의 역사를 만들어온 서산의 뛰어난 잠재력과 역량들이 하나하나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부푼 꿈과 희망으로 서산의 역사에 큰 획이 될 '해 뜨는 서산'의 중흥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령머드축제 통한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로 비상

김동일 보령시장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 하신일 모두 이루는 만사형통의 기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을미년(乙未年) 한해동안 시정발전에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병신년(丙申年) 원숭이 해입니다.

옛 문헌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원숭이를 모성애, 장수 등 좋은 의미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원숭이의 슬기로운 기운을 받아 우리시가 환황해권 명품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통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 보령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환황해권을 잇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과 국제 요트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우량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령머드축제를 통한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로의 비상하는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건승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동/네

보령시 통합브랜드 디자인 확정

환황해권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정체성 확립

보령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를 지향하고 서해 청정바다의 역동성을 모티브로 해해양관광도시로 비상하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난 1995년 보령시 개청 이래로 사용되어온 심벌 디자인을 변경하게 됐다.

시는 그간 브랜드 슬로건과 공동브랜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해 상징성을 재정립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변화된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됐다.

또 기존 마스코트인 갈매기가 시조로서 친근하고 개성 있게 시각화해 사용해 왔으나, 대내외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를 대신하기 위해 보령머드축제 대표 캐릭터였던 머돌이와 머순이를 시의 대표 캐릭터로 정해 위상을 높이고 보령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보령시는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통합브랜드와 캐릭터를 통해 환황해권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일본 관광객 유입 발 벗고 나서

공주시, 16명 대상 모니터 투어 진행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인 관광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KTX로 즐기는 세계유산여행'이란 주제로 모니터 투어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투어는 공주시의 가장 큰 외국인 관광시장인 일본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소개하고 KTX 공주역을 활용한 일본인 개별 여행객 유입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투어에는 지난 10월부터 일본 현지에서 발행되는 한국관광 전문지인 '코리아트래블'을 통해 응모한 총 16명의 일본인들이 참여했다.

투어단은 28일부터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공주한옥마을과 국립공주박물관을 비롯해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천년고찰 마곡사 등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람했다.

특히, 이번 투어는 KTX 공주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해 공주를 방문토록 하는 등 일본인 개별여행객 유치를 상정한 투어설정을 통해 KTX를 이용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들도 점검했다.

안명 테마관광팀장은 "일본 내에서 백제역사테마는 가장 인기 있는 소재"라며 "이번 모니터투어를 계기로 일본인 개별여행객의 여행패턴과 관심사 분석을 실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 대천5동-논산 연무읍 상호 교류

보령시 대천5동과 대천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논산 연무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초청, 상호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류행사는 대천5동 백영창 동장과 오치인 주민자치위원장, 논산시 연무읍 이정열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대천5동의 우수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견학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견학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대천해수욕장 등 관광지 탐방을 통해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오치인 위원장은 "논산시 연무읍 주민자치위원들의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이 위치한 대천5동 방문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대전시티즌

"병신년 원숭해, 재미있는 신바람 축구를 기대한다"

올해 최문식 감독 선임… 김일진 · 김종현 코치 영입

내년 시즌, 부산과 함께 2부리그인 K리그 챌린지 맞서

대전시티즌이 지난해 1부리그인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되어 4승 7무 27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2군으로 강등됐다. 이로 인해 전득배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임원들도 대폭 물갈이 됐다.

팬들의 실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대전시티즌은 올해 부산과 함께 2부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활약하게 됐다.

대전은 지난해 최문식 감독을 선임하여 탈꼴지를 꿈꾸었다. 그러나 클래식 팀들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시즌을 마무리하고 구랍 16일 김일진 · 김종현 코치를 영입해 금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김일진 골키퍼 코치는 최문식 감독과 포항 유스팀과 프로팀에서 코치로 동고동락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진 골키퍼 코치는 최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든든하게 뒷받침 해 줄 최후방 수비라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종현 코치는 2003년 대전으로 이적해, 10골 3도움을 기록하며 레전드 김은중과 함께 대전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김 코치는 풍부한 선수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치진과 선수단 사이에서 소통의 중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식 감독은 "무엇보다 황인범과 같은 어린 선수들의 육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을 위해 노력하며 지난 시즌 대전이 드러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단 구성 중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다며 체력적인 부분이나 섬세함이 떨어지는 경기력도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찾겠다"고 금년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힌바 있다.

대전시티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구단과 팬들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대전이 서포터즈 연대인 '대저니스타는 "시즌 초, 구단 내 불협화음과 방만한 선수단 운영, 정규리그 무승 등 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한 문제들로 선수단은 갈 길을 잃고, 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이에 전득배 사장은 해결책으로 시즌 중 감독교체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나, 반등은 고사하고 시즌 막판까지 단 3승밖에 더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단은 시즌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무의미한 스플릿 2승1무의 성적에서 다음 시즌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자위하고 있다" 며 반성과 사과 없이 가능성을 보았다며 미래를 찾고 경기력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구단 사장과 감독의 언행을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실망스러운 구단의 행태 및 운영, 팀 성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전시티즌을 지지해 왔지만, 더 이상 이런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 며 대전시티즌 팬들과의 간담회 개최, 올 시즌 팀 성적과 운영에 대한 해명, 납득할만한 차기 시즌 대책을 내놓을 것을 구단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7일 대전월드컵경기장 2층 중회의실에서 구단과 서포터즈의 간담회가 이었다. 이날 팬들은 "선수영입, 40명이 넘는 선수단 규모에도 성적부진, 팀 정체성이 없다."는 등 의견을 내놓았다. 대전시티즌이 챌린지로 강등된 제일 큰 문제로 선수영입을 뽑았다. 이에 전득배 사장도 선수영입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다. 젊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한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동하지 않고 있던 선수선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전시티즌 사장 자리는 정치권 출신보다는 전문스포츠 경영 능력을 지닌 CEO를 영입해야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축구동호인 A씨는 "대전시티즌의 강등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구단의 재정이 여전히 다른 구단에 비해 가장 열악하고 변변한 기업 후원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축구팬 B씨는 "대전시티즌이 어렵게 1부리그로 승격됐는데 다시 2부리그로 강등된 것에 대해 시민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이번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단 프런트의 전면 개편은 물론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대전시티즌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득배 사장이 2부리그 강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 구랍 14일 사표가 수리됐다. 전 사장의 후임으로 윤정섭 다우주택건설 이사가 사실상 낙점된 상태이다.

윤정섭 이사는 대전상고와 대전과학기술대를 졸업하고 중부대에서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가족식품과 다우주택건설 등에서 근무한 전문경영인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전시 유성구체육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전시생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전시민과 대전시티즌을 사랑하는 팬들은 2016년 챌린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2017년엔 다시 K리그 클래식에서 뛰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단과 팬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병신년 한 해 동안 원숭이처럼 지혜롭고 재미있는 축구, 신바람 나는 축구를 선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김정환기자

한화이글스

"마리한화로 2016년에도 즐거운 야구로"

마운드 보강과 공격력 강화로 비상을 꿈꾸는 한화

한화이글스는 지난해 68승 76패의 성적(승률 0.472)을 거두어 최종 6위로 마감하며 국어사전에 마리한화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즐거운 야구를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2016년 한화는 많은 선수 영입을 통해 비상을 꿈꾸고 있다.

◆한화 마운드

한화는 먼저 마무리와 계투가 가능한 정우람을 4년 총액 84억원에 영입했다. 정우람의 보직은 가장 취약점인 마무리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박정진과 권혁의 부담이 크게 사라진다. 탄력적이고 여유있는 불펜 운용이 가능하다는 추론이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등판한다면 박정진과 권혁 모두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올해의 아쉬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장 이재우를 영입.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두산에서 통산 342경기 39승 20패 3세이브 68홀드, 평균자책점 3.68을 기해한 이재우는 많이 던지며 다시 혹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일단 잘 던지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아닐까 싶다. 젊은 투수라면 몰라도 나는 이번 시즌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는 각오로 2016년 프로야구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 자이어츠의 심수창도 4년간 13억원에 영입했다. 심수창은 지난해 경기를 분석한 결과 변화구와 제구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포크볼은 한화팀 투수들에게는 없는 유형이라 선발이나 불펜이나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앞(선발)으로 가면 5~6회는 던질며 뒤(불펜)로 가면 롱릴리프도 가능하고, 1이닝 정도는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각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화의 마운드에 대한 김진욱(55) SKY sports 해설위원은 "비시즌 전력보강을 통해 한화 투수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삼성과 NC등 나머지 9개 구단과 견주어도 최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마운드에 있어서는 한화가 최강이다. 기본적으로 경기수가 늘어났다. 로저스가 한 시즌 15승은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투수를 보강한 것도 긍정적이다"고 평했다. 투수 명가 삼성과 신흥 강자로 떠오른 NC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화 공격력

한화는 이용규, 정근우로 이어지는 국가대표급 테이블세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시즌, 각각 타율 3할4푼1리 4홈런 42타점, 94득점에 28도루, 타율 3할1푼6리에 12홈런 66타점 99득점 21도루로 맹활약했다. 3번에서는 김경언이 깜짝 활약(3할3푼7리 16홈런 78타점 58득점)을 선보이며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줬다. 또한, 리그 최정상급 우타자인 김태균(타율 3할1푼6리 21홈런 104타점 61득점)이 4번에서 중심을 잡아줬다. 하지만 타점을 해줘야할 중심타선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최근 새 외국인 타자로 '핫코너'를 책임질 거포 3루수 용병 외국인 타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의 3루수 주전경쟁은 많은 후보가 '핫코너의 주인'을 노리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수가 수 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한화의 주전 3루수 찾기는 지난 2009년 일본 진출을 위해 이범호가 팀을 떠나며 시작됐다. 이후 송광민, 오선진, 이여상(현 롯데), 이대수(현 SK), 김회성 등이 번갈아가며 3루를 지켰지만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빠른 강습타구가 몰리는 탓에 '핫코너'라고 불리는 3루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뛰어난 수비감각과 강한 어깨, 정확한 송구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뛰어난 강타자들이 즐비한 포지션의 특성상 공격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악몽과도 같았던 외국인타자의 영입을 올해는 어떻게 퍼즐을 맞춰 우승 후보로서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갖춘 중심타선을 만들어 갈 것인지 사뭇 궁금하며 한화이글스는 외국인타자를 잘 영입한다면 올해 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 한화로서는 외야 수비를 책임질 수 있는 호타준족형, 또는 수비력이 떨어지더라도 팀에 아쉬운 장타력을 채워줄 수 있는 거포형 타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화이글스는 3년간 FA영입에 465억을 투자했다.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한화는 성적으로 능력을 증명할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15시즌, 아쉽게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한화이글스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부족했던 마운드 보강과 공격력 강화로 한화의 변화가 금년 시즌에는 어떤 야구를 선보이며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모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김태선기자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6422-6946
금촌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센터장 이진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67-4 유성청형외과 2층 H.P. 010-6417-7003 TEL. 042) 826-5554 FAX. 042) 826-5545

K-water 아산권관리단, 사랑나눔 봉사활동 K-water 아산권관리단 직원들은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리단 인근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모복지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시설물 정리정돈과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51대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 개최 제51대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12월 30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16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현철)가 지난 28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 청소년 동아리 나눔장터 수익금과 벼룩시장 수익금 26만여원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한밭새마을금고, 서구청에 희망나눔 좀도리 쌀 450포 기탁 한밭새마을금고(이사장 천순상)는 지난 29일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장종태) 다목적실에서 810만원 상당의 사랑의 좀도리쌀 450포(4500kg)를 기탁했다.

참되고 바르고 아름답게, 공주여중 진선미 축제 개최 공주여자중학교(교장 임달순)는 30일 교내에서 '진선미가 어우러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한 해의 마무리로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대전동방고교, 연탄 400장 기탁 대전동방고등학교 2학년 학생임원일동(학년장 유연수)은 지난 30일 연탄 400장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기탁했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에너지월드 개선(안) 추진의 일환

작은 도서관 · 에너지월드 갤러리 오픈행사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본부장 유성종)는 29일 보령에너지월드에서 「작은 도서관 · 에너지월드 갤러리 오픈행사」가 시행됐다.

작은 도서관 · 에너지월드 갤러리는 보령에너지월드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명품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월드 개선(안) 추진의 일환으로 관람객의 만족도 증대 및 문화적 기회 향유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은 관람객에 주요 관람층인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예술, 역사, 문화 등의 교육도서와 청소년과 성인층을 위한 분야별 베스트셀러, 보령지역 발간도서, 중부발전 발간도서 등 약 600여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월드 갤러리에는 현재 '보령화력 1발전소 30년의 역사'를 테마로 사진이 전시되고 있으며추후에 지속적으로 사진, 시 등 다양한 지역 작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유성종 보령화력본부장은 "사진전 관람을 통해 보령화력본부의 역사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식과 바른 품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월드는 지난 2009년 6월 17일 개관 이후 연 평균 약 3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꾸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령=이정복기자

충남지방경찰청 명예퇴임식 개최

배병철 경무관 경찰생활 아름다운 마무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12월 30(수) 대회의실에서 가족 및 동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병철 경무관의 승진임용식 및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은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 경찰조직을 위해 헌신해 온 선배님의 노고를 기리고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향진 청장은 퇴직자에게 승진임명장 · 기념패 등을 전달하며 명예퇴직에 대한 축하와 함께 제2의 인생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배병철 경무관은 "30여년이라는 긴 경찰생활을 무사히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사랑하는 주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몸은 비록 충남경찰을 떠나게 돼 석별의 아쉬움이 크지만, 재직기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일반 국민으로서 경찰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경찰로 남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향진 청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며, 우리 충남경찰은 선배님의 열정과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도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병철 경무관은 1979년 3월 3일 순경으로 입문하여 2013년 8월 1일 총경으로 승진하였으며, 재임기간 동안 경찰청 대공수사단, 정보국, 보안국, 경찰대학 등에서 두루 근무하였으며 총경 승진 후에는 충남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서산경찰서장, 부여경찰서장을 역임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서산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열려

2016년 1월 1일 부춘산 전망대 일원에서 개최

서산시는 2016년 1월 1일 부춘산 전망대 일원에서 해뜨는 서산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해뜨는 서산에 행복해가 뜨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2016년 새해, 서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06시30분 새해를 깨우는 타악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퓨전 판소리, 판굿과비보이, 대북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하고 2015년 서산시를 빛낸 각계각층의 서산시민들의 새해 희망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아울러 행사 참여자의 추억만들기를 위한 캘리그라피 소망엽서 써주기, 풍선에 소원을 적어 일출을 보며 띄우는 오색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역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도 돋보이는 이번 행사는 부춘동새마을회의 이웃돕기 떡국나눔 행사와 자원봉사 해오름의 따뜻한 어묵, 해미진한과의 한과 나눔으로 해맞이에 참여한 시민 및 관광객의 마음도 따뜻한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협서산시지부, 쌀전업농회는 떡국나눔 행사의 쌀을 후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비전과 같이 서산시민 모두 행복해지고 시 또한 타오르듯 떠오르는 해처럼 역동적인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희망찬 새해 해맞이 행사에 시민 및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2015년 대전시새마을부녀회 송년회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회장 유영숙)는 지난 29일 오후5시 대전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2015년 한해동안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결산하고 새마을부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시,구부녀회 임원들의 노고를 위로 및 격려하기 위해 백춘희 정무부시장, 한재득 대전시새마을회장, 박경수 시문고회장,구지회장을 비롯한 5개구 부녀회 임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유영숙 시부녀회장은 " 한해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화합하고 전진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될 수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 의경 · 의무소방원 · 군 장병 찾아

연말 맞아… 유관기관 노고 위로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 이석화)는 연말을 맞아 지난 29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의경, 의무소방원, 군 장병을 찾아가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석화 의장을 비롯해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0여명은 이날 청양예비군훈련장, 청양경찰서, 청양소방서를 방문해 과일과 피자 등 간식거리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군 장병, 의경, 의무소방원을 격려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주)상진, 둔포면 행복키움추진단에 후원금 전달 아산시 둔포면 소재 (주)상진(대표 박종서)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9일 둔포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고영선)에 후원금을 기부했다.

NH농협당진시지부 박영진 단장 정년퇴임

NH농협당진시지부(지부장 최석동)박영진 농정지원단장(사진)이 지난 30일 정년퇴임했다.

박영진 단장은 지난 1974년 농협에 입사해 충 · 남북의 시 · 군지부를 거쳐, 당진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근무하며 성실함과 열정으로 계통농협간 그리고 행정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박 단장은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구매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사업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밭대 김명수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 충남도지사 표창 동시 수상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12월 31일 도시공학과 김명수(사진) 교수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명수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행복주택 후보지선정 협의회, 광역교통심의위원회, 행복청 건설추진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계 자문심의위원회, 대전시청과 충청남도청의 건축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공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한 대외적 홍보활동과 현안사항에 대한 학문적 접근 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정복기자

인 사

■세종특별시

◇3급전보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4급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궁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시민안전국 생활안전과장 김종삼 ▲균형발전국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석천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희상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장 배영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

▲ 전력관리처장 장준희 ▲ 전력사업처장 허태요 ▲ 천안지사장 박기환 ▲ 서대전지사장 박병욱 ▲ 아산지사장 김영우 ▲ 당진지사장 김정래 ▲ 서산지사장 김홍권

※세종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대투 논단

병신년 새해 '꿈'과 '희망'을 소망한다

김헌태
논설고문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원숭이띠의 해이다. 재주, 흥, 열정 등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원숭이는 인간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어딘가 인간 냄새가 나면서도 영리하고 재미있는 동물이다. 혹자는 원숭이띠의 해를 부정적인 해로 해석하지만 긍정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반갑다. 원숭이 캐릭터나 원숭이의 잔재주를 보노라면 저절로 웃음꽃이 피고 원숭이노래도 그 자체가 늘 웃음을 안겨준다.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새로운 원숭이 캐릭터나 조형물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설 것 같다.

예로부터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과거 방송사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란 개그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누리던 시절도 있었다. 웃음이 곧 행복이고 희망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대전중문교회 예배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장면이 늘 펼쳐지는데 참으로 이채롭기도 하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유가 없이 때로는 이유를 만들어 장경동 목사님의 인도아래 30초간 배꼽이 빠져라 웃는데 그야말로 호탕한 웃음의 향연이 장관이다. "시작!"하면 웃기 시작하는데 웃으면서도 재미가 더해져 금방 웃음바다가 물결친다.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지혜의 소산이다. 웃고 또 웃고 웃음이 웃음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30초가 행복분위기로 차고 넘친다. 슬픔과 불행, 울음과 고통 등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꿈과 희망을 담는 아름다운 웃음이야말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행복지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뒤쳐져 있다. 어딘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OECD국가 중 무려 118위로 우울증, 자살률, 이혼율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다 1위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없이 인력만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단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크다. 그러나 세계인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행복이 결국 경제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바로 스위스인데 복지도 잘돼 있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맨날 경제력만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가 즐겁고 행복하며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그 가치관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자칫 경제만을 내세우다보면 사상누각이 되어 인간에 대한 가치보다는 오히려 배금주의(拜金主義)인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현상은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동남아시아에도 싱가포르 말고도 행복지수가 높고 국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작은 나라가 있다. 바로 말레이시아 옆에 붙은 브루나이 공화국인데 이 나라를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행복감과 여유가 사회 곳곳을 지배한다. 뉴질랜드도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들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남의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높은 삶의 질이 무척이나 부럽다.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올해 20대 총선이 4월 13일에 치러진다. 새해벽두부터 예비후보들이 선거전에 돌입하여 그 열기가 뜨겁다. 이럴 때마다 변함없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다. 참으로 즐겨 쓰는 말들이다. 이른바 '꿈', '희망', '행복'이다. 정치인들이건 종교인이건 언론이건 모두가 무척 즐겨 사용한다. 긍정의 언어로 우리네 삶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함축하는 메시지로 이만한 단어가 또 있을까. 꿈과 희망, 행복은 같이 다니는 단어다. '꿈'이란 단어에는 재미있는 주석들이 망라되어 있다. 당초의 뜻은 바로 수면 중의 꿈이다. 이런 꿈에도 악몽의 뜻이 있다. 또 희망과 이상, 야심, 환상, 망상의 뜻도 함축되어 있다. 재미있는 수식어도 붙는다. '참꿈', '개꿈', '좋은 꿈', '불길한 꿈', '무서운 꿈', '허황된 꿈' 등이다. 학창시절 영어를 배울 때 접하던 문장인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도 청소년들에게 꿈을 통해 웅비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좌우명이 되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달성 시에 등장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은 국민 감동의 슬로건이었다.

'희망(希望)'이란 단어도 그렇다. 소망과 기대, 요구 등을 함축하며 꿈만큼이나 다양하게 쓰여 진다.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상징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나 남용되다 보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 마치 늑대소년의 말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가 그렇다.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짓과 허상의 언어유희라고 생각한다. 너무 남용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그려내는 꿈과 희망 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삶의 멋진 꿈을 그려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만큼 자신들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와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한 이상도 함께 한다면 더욱 의미가 커질 수 있다. 사실 꿈과 희망을 갖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때로는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좌절과 고통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으로 헤쳐 나가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는 산고(産苦)로 생각한다면 그 기쁨은 한층 배가될 것이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나 사회는 삭막하다.

이런 의미에서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긍정으로 출발하여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가꾸는 해가 된다면 새해 병신년은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도 우리 앞에 바짝 다가설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렇게 대서특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드디어 세계 OECD국가 중에서 스위스를 앞지르고 1위에 올라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개가!" 이것도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벅찬 꿈이고 간절한 소망이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청년실업과 경제난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부정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꿈과 희망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새롭게 되새기며 이를 우리 사회의 모멘텀(momentum)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배꼽이 빠져라 웃어대며 기쁨과 행복. 밝은 희망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사회가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낡고 퇴행적인 부정의식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찬 새해설계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복한 삶과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미래가치로 승화시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특별 기고

새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지혜

유병로
대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날짜만 하루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확 달라질 것만 같다. 매일 떠 오르던 태양인데도 매우 새롭게 느껴진다. 각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과 각오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달력에 이것저것 계획도 메모해 놓고, 수첩에 새해의 각오를 되새겨 적는다. 대부분은 지난해에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한 사소한 것들인데 그래도 또 다짐을 해 보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계획이지만 익숙한 내용들이다.

TV를 켜면 귀가 아프도록 들리는 것은 개혁, 혁신 등 변화를 추구하는 소리들이다. 새해가 되면 더욱 더 자주 접하게 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창조 감성시대에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더욱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움은 가능성을 확장시키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불확실성 역시 커진다. 불확실성은 사회의 혼돈을 초래하고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뒷 정리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급속한 변화의 대열에 동승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므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평생 배우고 뛰지 않으면 일상생활마저도 적응할 수 없는 평생교육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변화에는 주기가 있고 또 복고적 경향성도 나타난다. 45억년 지구의 역사를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4계절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듯이 그 형태와 범위는 다르지만 과거의 모습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곤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빠른 경쟁적 속도전 속에서 간과하거나 잃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뉴스를 통해 각종 사회병폐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모나 자식을 학대하거나 묻지마 살인 등 사회도덕이 붕괴된 현장을 접하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동체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인성교육법을 만들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며 가정과 사회 전체가 나서야할 덕목이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끈인 윤리도덕이며,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인성의 고양'이다. 공자는 평생 동안 인(仁)을 부르짖었다. 인(仁)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이는 예(禮)의 기반이 되었다. 마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다.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뜻이고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에 대한 배려를 감성적 차원에서 완성해 놓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공자의 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단을 부르짖었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인(人)의 싹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싹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싹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싹이다. 인, 의, 예, 지 가 맹자의 사단이다. 물론 빠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시 · 공간적 갈등이 확대되기도 하고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물론 빈부갈등, 세대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과거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시기였음에도 출산율이 높아 산아제한을 권장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소득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저출산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지만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지혜가 필요하다. 논어에 소개되어 있는 공자의 말씀인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는 '옛것을 온양하여 새것을 만들어 낼 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만한 말이다. 골목길을 걷다보면 8살 아이가 길을 이리저리 헤메고 있는 두 살아래 동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피식 웃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물론 동생이 하는 짓이 뻔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과거 수렵사회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힘센 장년이 수장이 되었다. 그러나 농경시대로 접어 들면서 기후예측과 경작에 대한 경험적 지혜가 풍부한 노인이 수장으로 존중되면서 노인공경의 효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된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더 나는 미래를 열어간다. 과거는 소중한 것이다. 카르(E. H. Carr)가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듯이 역사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판단하게 해주는 표본이며 여러 경우의 미래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이다. 역사를 모른 채 앞으로 질주하는 것은 백미러 없는 운전을 하거나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거와 역사라는 거울을 비춰보고 지금을 평가하며 앞을 내다봐야 한다.

직 · 간접 경험과 지식을 거울로 삼으면 앞날에 벌여질 새로운 것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창의적 개성이 중요시 되는 창조감성 시대에서는 더 새롭고 더 많은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모두에게 꼭 맞는 한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에게 유익한 방법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오랫동안 여러사람들로 부터 호평받은 방식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사 설

충청권이 대한민국 중심지로 우뚝 서는 원년 되길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새롭게 출발하는 2016년 원숭이띠 해에는 원숭이가 상징하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온순한 마음과 온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길 희망하면서 충청권의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되길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함께 염원해본다. 무엇보다도 움츠렸던 충청권의 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살맛나는 충청권, 살고 싶은 충청권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난 해소는 물론 충청권광역철도망과 연계된 대전지하철 2호선 건설문제, 과학벨트의 조속한 원안추진, 충남도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과 황해권 개발의 지속추진, 충북의 첨복단지조성과 바이오산단, 세종특별자치시로의 미래부 원한이전과 조기정착 가시화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한다. 지지부진한 과학벨트와 첨복단지조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정부가 약속한 충청권 특화산업의 집중투자와 육성-발전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중국 등 세계로 수출하는 계기로 만들어 충청권발전의 견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행정의 허브, 과학의 허브,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우뚝 서는 원년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에는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심을 대변하며 지역 현안사업과 예산을 담보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이다. 충청권 홀대의 정치적 불균형에 지역민과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표의 등가성을 지켜내야 하며 세종시로의 미래부 이전을 성사시키고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되어 조기정착의 가시화로 나타나고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당진항의 확충을 통하여 충남도 내포신도시가 대 중국무역, 관광산업의 전초기지로 발전하며 대전의 과학벨트와 충북의 첨복단지의 차질 없는 지속추진으로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 이는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는 국책사업이자 충청권의 핵심현안사업이며 충청권이 우리나라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과학발전의 요람이며 사통팔달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나아가 환태평양시대의 서해안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를 디딤돌로 삼아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대전-충남-충북 그리고 세종시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충청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야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나 정책개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아가 500만 충청인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중국경제가 침체되고 러시아경제가 추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불투명하고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와 맞물려 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 4년차인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경제살리기, 노동개혁 등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야당의 분열과 제3신당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서 지역 민심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충청권의 표심이 영호남의 표심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혁신의 정치,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며 기존정치권에 반기를 든 국민여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치를 펴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툭하면 여야정치권이 싸우거나 정쟁을 일삼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고 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3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를 펼치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지사는 이러한 중앙정치의 폐단을 올바로 직시하고 시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도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

500만 충청인의 새해소망은 충청권 발전을 화두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경기활성화와 내실 있는 시-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징역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지역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이 없이 균형발전을 기본전제로 하여 골고루 잘사는 그런 시-도정을 펼쳐주길 기대해본다. 리더들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충청권 시-도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시-도정의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양분된 지역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화합-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는 국책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면서 중앙정부에 예산과 정책이 반영되도록 시-도정을 펼쳐주길 충심으로 기대한다. 출향인사나 경제단체도 마찬가지이며 과학자나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와 더불어 언론이 선도하며 충청권에 유치된 국책사업 그리고 충청권에 둥지를 튼 정부청사와 기업들이 충청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충청권을 발전시키고 충청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한다. 500만 충청인의 힘찬 도약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굳게 뭉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의 소사

2011년	서울동물원 가축질병 위기로 재장 후 첫 관람객 입장 중지	2000년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대란 불발
2011년	브라질 첫 여성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취임	1999년	유로(EURO) 체제 출범
2009년	태국 나이트클럽 화재 최소 59명 사망	1997년	남산대교 철거 시작
2008년	호적(戶籍)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1997년	114 안내전화 유료화
2007년	루마니아·불가리아 유럽연합 가입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2년	유럽, 유로화 공식 사용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하신년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DT
大田투데이 전직원 일동